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박사학위논문

#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 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서성열

#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 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

Influence of Youth's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

2019年 2月 25日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서성열

#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 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

지도교수 윤 종 록

이 논문을 경영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年 10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서 성 열

# 서성열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대전대학교 교수 박 계 홍



위 원 남서울대학교 교수 김 형 철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용 선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손 수 진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윤 중 록



2018年 12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I. 서론</b> .....	<b>1</b>
1.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1.3 논문의 구성 .....	5
<b>II. 이론적 배경</b> .....	<b>7</b>
2.1 창업가 역량 .....	7
2.1.1 창업의 개념 .....	7
2.1.2 창업가 역량 .....	8
2.1.2.1 창업가의 개념 .....	8
2.1.2.2 창업가 성향 .....	8
2.1.2.3 창업가 역량의 구분 .....	9
2.1.3 기술적 역량 .....	11
2.1.4 창의적 역량 .....	14
2.2 창업의지 .....	18
2.2.1 창업의지의 개념 .....	18
2.2.2 창업의지의 선행연구 .....	20
2.2.2.1 창업의지의 연구모델 .....	24
2.2.2.2 Ajzen의 계획행동이론 .....	25
2.3 창업행동 .....	27
2.3.1 창업행동의 개념 .....	27
2.3.2 Shane의 창업행동이론 .....	31
2.3.3 창업행동의 선행연구 .....	33

2.4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	34
2.4.1 창업교육의 개념 .....	34
2.4.2 창업교육의 내용 .....	40
2.4.3 국내 창업교육 현황 .....	42
2.4.3.1 창업교육현황 .....	42
2.4.3.2 청소년 비즈쿨 .....	44
2.4.3.3 창업대학원 .....	45
2.4.3.4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	46
2.4.3.5 기타 교육지원 현황 .....	47
2.4.4 국외 창업교육 현황 .....	48
2.4.4.1 미국 .....	48
2.4.4.2 이스라엘 .....	51
2.4.4.3 호주 .....	53
<b>Ⅲ. 연구 모형의 설계 및 가설 설정 .....</b>	<b>55</b>
3.1 연구모형의 설계 .....	55
3.2 가설의 설정 .....	56
3.2.1 청년 창업가 역량과 창업의지와 관계 .....	56
3.2.2 청년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과의 관계 .....	57
3.2.3 창업의지와 매개효과 .....	58
3.2.4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	60
<b>Ⅳ. 연구방법 .....</b>	<b>62</b>
4.1 표본의 선정 및 분석방법 .....	62
4.1.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	62
4.1.2 표본의 특성 .....	62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64
4.2.1 기술적 역량 .....	64

4.2.2	창의적 역량 .....	64
4.2.3	창업의지 .....	65
4.2.4	창업행동 .....	66
4.2.5	창업교육 .....	66
4.3	자료분석 방법 .....	67
4.4	설문지 구성 및 측정 .....	68
<b>V.</b>	<b>실증분석 .....</b>	<b>70</b>
5.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	70
5.1.1	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성분석 .....	70
5.2	상관관계 분석 .....	73
5.2.1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	73
5.3	연구모형의 분석 .....	74
5.3.1	측정모형 및 회귀분석 .....	74
5.3.2	직접효과 검증 .....	78
5.3.3	간접효과 확인(매개효과) .....	80
5.3.3.1	부트스트래핑 분석 .....	80
5.3.3.2	소벨 검정 .....	82
5.3.4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검증(1) .....	83
5.3.5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검증(2) .....	85
5.4	가설검증 결과 요약 .....	88
<b>VI.</b>	<b>결 론 .....</b>	<b>91</b>
6.1	연구결과의 요약 .....	91
6.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	93
6.2.1	학문적 시사점 .....	93
6.2.2	실무적 시사점 .....	94
6.2.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	96



6.2.3.1 본 연구의 한계점 ..... 96  
6.2.3.2 향후 연구의 방향 ..... 97

참고문헌

부 록

## 표 목 차

<표 2- 1> 창업가 성향 .....	9
<표 2- 2> 창업가 역량의 구분 .....	11
<표 2- 3> 기술적 역량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	13
<표 2- 4> 창의성 및 창의적 역량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	17
<표 2- 5>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	19
<표 2- 6>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	22
<표 2- 7> 창업행동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	30
<표 2- 8> 창업교육에 관한 정의 .....	35
<표 2- 9> 창업교육의 필요성 .....	38
<표 2-10> 창업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 항목 .....	41
<표 2-11> 창업교육 현황 .....	42
<표 2-12> 국내 대학교의 창업교육 진행현황 .....	43
<표 2-13> 창업동아리 활동 현황 .....	43
<표 2-14> 비즈쿨 체험활동 내용 .....	44
<표 2-15> 창업대학원 설치현황 .....	45
<표 2-16>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내용 .....	46
<표 2-17> 창업교육 지원현황 .....	47
<표 2-18> Babson College 창업교육 프로그램 .....	49
<표 2-19> Wichita State 대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	50
<표 2-20> Baylor대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	51
<표 2-21> Swinburne 대학교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	53
<표 2-22> Swinburne 대학교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	54
<표 4-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63
<표 4- 2> 설문지의 구성 .....	69
<표 5- 1> 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성 분석 .....	72

<표 5- 2>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	73
<표 5- 3> 독립변수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	75
<표 5- 4> 요인 간 공분산(상관관계) .....	77
<표 5- 5> 전체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77
<표 5-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79
<표 5- 7> 부트스트래핑 분석에 의한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 .....	82
<표 5- 8> 소벨 검정에 의한 매개변인 효과 분석 .....	83
<표 5- 9>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	84
<표 5-10> 다중집단 분석결과(표준화 $\beta$ 기준) .....	85
<표 5-11>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	86
<표 5-12> 가설 검증표 1 .....	88
<표 5-13> 가설 검증표 2 .....	89
<표 5-14> 가설 검증표 3 .....	89
<표 5-15> 가설 검증 종합 결과표 .....	90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	6
<그림 2-1> The 4Cs super skills .....	16
<그림 2-2> 창업이벤트 모델 .....	25
<그림 2-3> 합리적 행위이론 .....	26
<그림 2-4> 계획행동이론 .....	27
<그림 2-5> 창업행동의 과정 .....	32
<그림 3-1> 연구의 모형 .....	55
<그림 5-1> 측정모형분석 .....	76
<그림 5-2> 경로계수 .....	80
<그림 5-3>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	87

## 국문초록

###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 - 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

서 성 열

본 연구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창업가 역량의 구성요인인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셋째,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간의 관계에서 창업의지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넷째,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이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0 일간에 걸쳐 예비창업자 및 기 창업자인 청년을 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 졌으며,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총 580부를 설문하여 562부를 회수하여 부실한 12부를 제외한 550중 이 중 창업교육을 받은 145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창업가의 역량 중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간의 관계에서 창업의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를 통해서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교육의 지각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창업의지나 창업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청년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나 창업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관한 기술적 역량 및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간의 관계에서 창업의지를 매개로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긍정적인 창업의지가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창업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년의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으로 이루어 질 때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창업교육의 효과, 창업의지의 영향요인,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등 창업교육 및 창업의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미흡한 상황이다. 창업교육의 연구결과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이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의 조절요인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교육을 받은 청년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청년창업가들의 창업의지를 더욱 함양하고 실제로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ABSTRACT

### Influence of Youth's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

Seo Seong Yeol

Advisor : prof. Jong-rok Yoon,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verify the influence of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e of yout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A survey was administered for around 30 days from June 12 to July 14, 2018 among youth who were aspiring entrepreneurs and existing entrepreneurs.

A total of 580 surveys were distributed, of which 562 were collected.

Of the collected surveys, 12 were discarded as they were incomplete; from the remaining 550, only 145 were used as these respondents had received entrepreneuri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competence of young entrepreneurs, technical and creative competence had positive impa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e,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of young entrepreneurs was examin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echnical and creative competence had positive impacts on entrepreneurial behavior through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entrepreneurial behavior was also verified. It is concluded that higher levels of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led to a more positiv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entrepreneurial behavior.

The study's results ma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confirmed that both technical competence and creative competence of young entrepreneurs, which were rarely covered in the existing researc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were important variables that influence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Secon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e,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it is confirmed that young aspiring entrepreneurs could become real entrepreneurs and that positive entrepreneurial intention could lead to real and successful entrepreneurial behavior.

Third,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shown that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important when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intention manifested itself in entrepreneurial behavior.

To date, there are several studies o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uch as those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However, despite several attempts by multiple researchers,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remain largely unconfirmed.

This study indicated that youth with high levels of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exhibit stronger entrepreneurial behavior in the presenc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refore, governments should provide a customized entrepreneurial education curriculum that improves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young entrepreneurs even further and engages them in various support activities that would result in successful entrepreneurship.

# I. 서 론

##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고용불안과 실업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에 대한 범 국가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창업에 도전하여 성공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창업은 청년들의 실업해소와 더불어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이 개인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부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가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는 개인의 생활수단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국가의 성장과 경제활동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경제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세대 간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인식 되어 지고 있다.

청년창업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이러한 일자리는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 대기업자체의 채용의 한계는 점차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기업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이 기업형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66%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99%이상이 창업기업 등의 중소·벤처기업이 중국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Lo Choi Tung, 2011).

현재 한국 청년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회피성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25~34세 청년들의 창업 활동비율은 4.7%로 전체 조사대상국 64개국 중 6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국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년의 창업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29세 이하의 청년창업의 비율은 3.5%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창업성공사례를 배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창업을 접하게 되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적인 변화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창업이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창업을 시도하기는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따른 감원과 폐업 등으로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취업을 못한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도 최근 급증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창업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창업의지다. 창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창업 동기 요인이 창업의지를 불러일으켜 창업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 연구가 창업동기 요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까지만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은경, 2015; 방태연, 2015; 오현준, 2015; 이윤정, 2014; 이창수, 2015; 조영조, 2016; 채연희, 2016).

창업의지의 선행요인은 주로 창업교육프로그램, 창업교육 만족, 고용가능성, 인적특성, 사회적 환경, 환경특성, 창업위험요인 등 이다. 인적특성으로 기업가적 역량,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관리 역량 등 창업가 역량과 자기관리나 성장 지향, 성취욕구 등의 창업가 성향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고 있다(Fitzsimmons & Douglas, 2011; Douglas, 2013; 정대용·한관섭, 2012; 강제학·하규수; 2015; 임아름, 2015).

청년층의 창업의지가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의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3년 내에 창업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한 반면, 창업 교육을 받은 사람은 39.9%로 훨씬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즉,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창업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수강한 집단의 창업활동 비율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창업가역량, 창업의지, 창업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진 창업동기 요인이 창업의지까지 미치는 연구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종속변수인 창업행동에 대하여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모형을 확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Shane et al.(2003)이 창업행동의 과정에서 개인적 태도와 환경적 요인의 동기요인이 각각 발견행동과 기회개척, 실행으로 직접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기업가적 기회가 영향을 미치는 창업과정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Ajzen(1988, 1991)의 계획행동이론인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인적 특성인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청년의 창업의지 및 창업행동을 높이는 창업가 역량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이 되도록 요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년의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국내외 연구문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가 역량이 청년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셋째, 청년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행동 간에 창업의지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넷째,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로부터 이론체계를 정리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의 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창업가 역량의 개념, 창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파악하고 청년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 중 창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 창업의지, 창업행동, 창업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 선행 연구논문도 고찰하고 이들 구성개념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이론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실증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는 설문지에 의하여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2018년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주로 창업박람회에 참석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대상자의 분포는 서울·경기, 강원도,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에 주거하는 청년이다. 창업박람회는 창업에 대한 여러 정보가 있기에 예비창업자, 창업자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다.

이 중 통계분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설문지나 부정확한 설문지를 배제하고 총 550부중 창업교육을 이수한 145부의 설문지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SPSS 19.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계수에 의한 신뢰도 분석, 최종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전체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분석과 소벨 검정(Sobel-test)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다중집단분석과 위계적 회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는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II 장은 창업가 역량, 창업의지, 창업행동,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관련 개념연구와 이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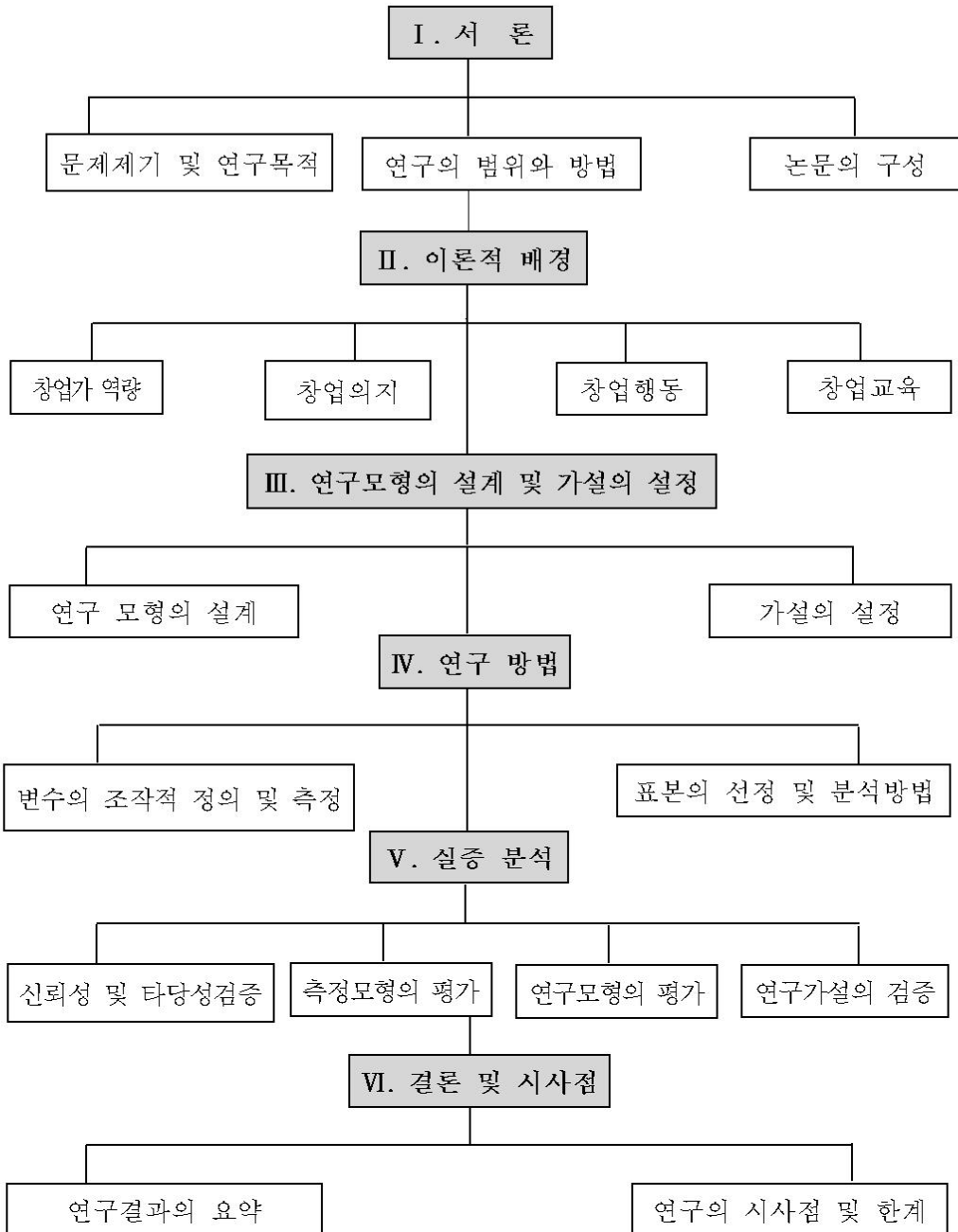
제 III 장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IV 장은 실증연구의 조사 설계 부분으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설문지의 구성,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표본의 특성, 분석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V 장은 연구 가설에 대한 실증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조사 결과를 통계적 방법에 의거 분석, 검토함으로써 가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해석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VI 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연구 결과의 요약, 시사점, 그리고 연구 결과의 한계 및 향후연구 과제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전반적 구성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체계도

## II. 이론적 배경

### 2.1 창업가 역량

#### 2.1.1 창업의 개념

창업이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부를 창출하는 활동이고 사회적으로는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 등을 생산, 판매,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즉,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투입하여 부가가치가 있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이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을 새로 만드는 일” 또는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자원을 결합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Bălăceanu & Apostol(2013)은 창업에 대해 새로운 것이나 이미 존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라 하였다. Gartner와 Vesper(1992)는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이라 하였고, Rantanen(2013)은 사회 경쟁력,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에 있어서 핵심요소이고 동시에 개인적 수준에서의 취업 수단이라고 하였다. 창업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이며 진취적이고 모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백기동, 20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이 제외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에서는 첫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셋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청년은 청년고용촉진법과 통계청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은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에서는 40세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정하였다.

## 2.1.2 창업가 역량

### 2.1.2.1 창업가의 개념

기업은 창업가가 있어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창업할 마음이 있거나, 계획 또는 준비하는 사람은 예비창업가이고, 창업을 한 자는 창업가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의 기간을 창업 후 7년 미만이라 하였다.

Begley & Boyd(1987)는 창업가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이춘우(1999)는 창업가를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이며, 기존 조직 내 모든 개개인도 될 수 있으며, 조직 자체도 창업가가 될 수 있으며, 김춘근(2015)은 창업가는 위협을 예상하고 기업을 관리를 담당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 하였다. 또한, Schumpeter(1934)도 기회를 추구하고,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자로 정의 하였다. 즉, 창업가란 창업가적,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에 따른 위협을 감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최고 경영자로서 개인이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Masters & Meier(1988)는 소기업의 대주주 또는 경영자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창업가에 대한 정의는 좀 차이가 있어도 창업가적,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협을 예상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 2.1.2.2 창업가 성향

창업가 성향으로 Lumpkin & Dess(1996)는 자율성향, 혁신성향, 위험감수성향, 적극성향, 경쟁성향의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고, Krauss et al.(2005)은 학습 성향과 성취성향을 첨가하였다. 아래의 <표 2-1>은 창업가에 대한 강병오(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1> 창업가의 성향

연구자	내 용
Lumpkin & Dess(1996)	자율성향, 혁신성향, 위험감수성향, 적극성향, 경쟁성향
Krauss et al.(2005)	자율성향, 혁신성향, 위험감수성향, 적극성향, 경쟁성향, 학습 성향과 성취성향
Nicollas(1767)	아이디어 혁신자,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 위험감수자
Say(1803)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Penrose(1959)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
Cole(1965)	혁신적인 사람
Timmons(1978)	자신감, 목표지향성, 중간정도의 위험감수, 내적 통제위치, 창의성, 혁신성을 가진자
Kao(1999)	용의주도한 위험 감수자, 성취욕구와 자율성의 소유자, 자신감과 내적 통제위치, 도전정신, 숭선수범 등의 속성을 가진자
Morris et al.(1999)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자료 : 강병오(2011) 연구를 참조해 연구자 재정리

위에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가는 아이디어 혁신성,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기술성), 위험감수성, 기회포착성, 창의성, 혁신성, 성취성향, 기회를 창출하는 자라 할 수 있다.

### 2.1.2.3 창업가 역량의 구분

역량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창업 및 벤처 기업 분야에서는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뛰어난 경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및 능력으로 개념화된다(Klemp, 1980). 역량은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로써 측정 가능하며(Parry, 1996), 평균 성과자와 우수 성과자를 구분하는 기술, 지식, 특성이다(Mirabile, 1997).

Prahalad & Hamel(1990)은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 등 기업 경영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업가 역량을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으로 개념화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업가의 개인특성으로서 창업가역량에 대한 역량적 접근법을 연구하면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윤종록·김형철, 2009).

Chandler & Hanks(1994)는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창업가 역량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는데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자원을 보면 기업 특유성을 지닌 기업자원으로서는 창업가의 창업가적 능력이나 경영능력, 개인적 네트워크 및 과거의 창업경험 등과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 능력 및 사회적 배경 특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였다. 이에 임아름(2015)은 자원기반 이론 관점에서 시장감지 역량,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Lumpkin & Dess(1996)는 창업가의 성향으로 혁신성향, 자율성향, 위험감수성향, 적극성향, 경쟁성향의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Chandler & Jansen(1992)은 초기 창업 후 기업가가 취해야 할 역량을 기회인식능력, 인적/개념적 역량, 기술/기능적 역량, 결과 지향적 동인, 정치적 역량으로 구분하였으나 후에 다시 창업가적 역할, 관리자적 역할, 기술-기능적 역할로 구분하였다. 김춘근(2015)은 기술에 기반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를 지칭하는 기술적 역량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체계를 구축하는 정도를 지칭하는 전략적 사고 역량과 창업가가 합리적,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정도를 지칭하는 조직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창업과 벤처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는 창업가의 핵심 역량이며(백서인·이성민·장현준, 2015), Drucker(1954)는 기술 역량과 마케팅 역량을 창업과 벤처의 핵심 역량이라 하였다. 초기 창업기업은 창업가 및 그의 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Chandler & Jansen, 1992).

이처럼 학자들에 따라 창업가의 역량을 <표 2-2>와 같이 여러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자는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창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표 2-2> 창업가 역량의 구분

연구자	내 용
Drucker(1954)	기술 역량과 마케팅 역량.
Chandler & Hanks (1994)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자원을 보면 기업 특유성을 지닌 기업자원으로서 창업가의 창업가적 능력이나 경영능력, 과거의 창업경험 및 개인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 능력 및 사회적 배경 특성과 같은 요소에 주목 함.
Lumpkin & Dess (1996)	혁신성향, 자율성향, 위험감수성향, 적극성향, 경쟁성향으로 구분 함.
임아름(2015)	자원기반 이론 관점에서 시장감지 역량, 창의적 역량, 기술적 역량으로 구분 함.
김춘근(2015)	기술적 역량과 전략적 사고 역량, 조직적 역량으로 구분 함.
본 연구의 내용	창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

자료 : 연구자 재정리

### 2.1.3 기술적 역량

기술은 제품을 개발 및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적이고 실용화 된 지식이다. 지식은 기본적인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고, 기본 지식을 가지고 제품의 개발 및 발전하는데 실용화 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udretsch et al.(2002)은 기술은 과학에 의해 얻어진 신지식을 실제 문제에 응용하는 것이고 과학은 사실과 진실의 관찰에 지식의 탐색으로 보았다.

기술적 역량은 창업가 역량 중에서 기술을 소유한 창업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기술을 소유하여야 무한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기술적 역량은 창업자가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능력으로 기술에 기반을 둔 역량이다(Burgelman, Maidique & Wheelwright, 1996). 그는 기술적 역량이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과 강화에 주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이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할 수 있다.

Romijn & Albaladejo(2002)는 기술적 역량에 대하여 기술의 선택, 획득, 개선 및 활용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적인 방법이며, 윤병선과 서영욱(2016)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생산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였다.

Barney(1991)는 기술적 역량은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제반 기술 능력이며, 기술 선택 및 활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이라 하였고, 이병헌 등(2008)은 기술역량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자원의 보유 정도이며, 전문기술인력과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Lall.S(1992)는 기술혁신 역량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창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투자능력, 생산능력 및 기술혁신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Westphal, Kim & Dahlman(1985)은 기술혁신 역량을 기존 기술지식의 효과적 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혁신역량은 기업의 기술, 제품, 프로세스, 지식, 경험 및 조직을 포함한 특정 자산 또는 역량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전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포괄적 기업특성이다(Guan & Ma, 2003).

Yam et al.(2004)는 혁신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전략계획역량, 학습역량, 연구개발역량, 조직역량, 생산역량, 마케팅역량, 자원배분역량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고, 윤현덕과 서리빈(2011)은 전략계획능력, 학습능력,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마케팅능력, 조직관리능력, 자원배분능력 등으로 제시했다.

기술적 역량은 외부의 기술적 지식을 흡수하여 활용하거나, 기존에 가진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량이다(Tushman & Anderson, 1986; Henderson & Clark, 1990; Bettis & Hitt, 1995; Lee et al., 2001). Chandler & Jansen(1992)은 기술창업 기업은 기술·기능적 교육 수준이 높고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Fritsch & Franke(2004)는 초기 창업 기업은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외부 협력사와 기술 협력 활동을 통한 외부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McDougall, Oviatt & Shrader(2003)는 최고 경영자의 기술적 역량에 따라 기업의 기술적 역량이 달라지며, 달라진 기술적 역량은 글로벌 시장에 성공

적으로 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최고 경영자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기술의 성격, 기술의 로드맵, 기술의 발전 경로, 향후 기술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할 필요성이 있다(김경식, 2005). 기술적 역량은 치열한 경쟁 환경 하에서 경쟁 기업 대비 우수한 제품개발과 생산우위를 확보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전인오, 2012).

기술적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기술적 역량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연구자	내 용
Westphal, Kim & Dahlman(1985)	기존 기술지식의 효과적 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
Barney(1991)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제반 기술 능력이며, 기술 선택 및 활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
Lall.S(1992)	기술혁신 역량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창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투자능력, 생산능력 및 기술혁신 능력으로 구분.
Burgelman, Maidique & Wheelwright (1996)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능력으로 기술에 기반을 둔 역량임.
Romijn & Albaladejo (2002)	기술의 선택, 획득, 개선 및 활용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적인 방법.
윤병선과 서영욱 (2016)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생산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능력.
연구자 의견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 문제를 해결하며 전문화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술 혁신능력과 기술 활용능력으로 분류.

자료 : 연구자 재정리

Chandler & Jansen(1992)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 역량은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며, 생산성이 높은 성공한 기술창업기업은 기업가의 기술적 기능적 교육수준이 높고 해당분야에서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혁신적 기업가는 새로운 기술 창출과 제품·공정 혁신을 통해 신 시장을 개척한다(Audretsch, 2002).

고영훈(2017)은 기술적 역량을 제품 개발 능력, 제품 생산 능력 및 기술 혁신 능력으로 분류하고, 기술적 역량은 전문화된 기술지식의 활용과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기술혁신의 구성요소를 Coombs and Birely(2006)는 보유기술의 수준, 신제품 수, R&D투자비중, R&D 인력의 규모와 비중, 보유 특허건수, 과학기반과의 연계정도, 기술수명주기 등 이라 하였다.

기술적 역량을 소유한 창업가는 기술창업기업의 기술적 성과, 비재무적인 성과에 유의한 성과를 나타낸다(김춘근, 2015).

#### 2.1.4 창의적 역량

창의적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의적 역량은 창의성과 아주 관련이 깊다. 창의성은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능력이다(Runco, 1991). 그는 능력에는 문제해결과 발견을 위한 융통성, 독창성, 유창성 능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경화·유경훈(2014)은 창의성에 대해 남과 다른 독특함, 대체로 새로움, 기발함,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적절한 것을 생각하기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창의성이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을 해결하려는 방법 모색, 추측이다. 우선 가설을 세워서 해결책과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며, 재검토하고 최종적 결과물을 도출하며 평가해가는 과정’이다(James, 1990).

Amabile(1989)은 조직에서 창의성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유용한 아이디어 산출로 정의하였고, 창의성은 한 개인의 내면의 정신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과 네트워킹과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Vygotsky, 2004).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확산적 사고를 위한 훈련, 문제해결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습할 것을 강조한다(황성용, 2013).



창의성의 주요 요인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요인, 둘째, 정의적 요인, 셋째, 사회적 요인이다.

첫째, 인지적 요인은 경우 전통적으로 창의적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창의적 사고는 어떤 문제, 어려움, 결함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측하거나 가설을 수립하여 그 부분을 검증한 다음, 수정 후 재검증을 통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Torrance, 1959).

둘째, 정의적 요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 특성 부분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적동기가 충족되어야 높은 성취에 도달할 수 있다 보았으며, 동시에 외부적인 요인이 달성한 성취에 대해 인정과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이다. 인간이 잠재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것의 인식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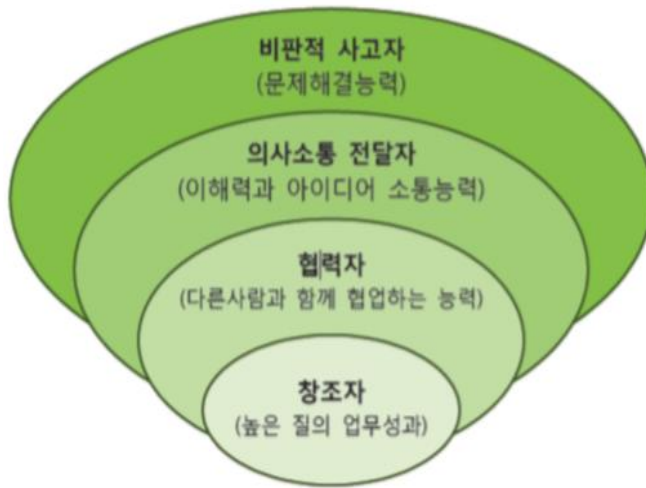
창의성은 21세기 핵심 인재 역량에서 중요한 특성이며, 창의적 사고는 어떤 문제, 어려움, 결함에 대해 추측하거나 가설을 수립하여 그 부분을 검증한 다음, 수정 후 재검증을 통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Torrance, 1959). 황성용(2013)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확산적 사고를 위하여 훈련, 문제해결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습할 것을 강조한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문제해결의 장애부분이나 어려운 점을 인식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에 대해 가능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인지과정이다(Feldhusen & Treffinger, 1985). 이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관점에서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최선의 대안과 해결책을 찾는 역량이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Isaksen & Dorval & Treffinger(2000)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확산적 사고를 통해 탄생한 아이디어를 기본 바탕으로 하지만 수렴적 사고를 통한 역할도 상대적으로 크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산적 사고만을 할 것이 아니라 수렴적 사고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역량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고역량,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해결책을 찾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Lipple(2013)은 <그림 2-1>과 같이 미래의 인재상을 4가지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함양을 표현 하고 있다. 4Cs는 비판적 사고(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전달자(이해력과 아이디어 소통능력), 협력자(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능력), 창조자(높은 질의 업무성과)로써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가 창의적 역량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를 소유하여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높은 질의 업무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1> The 4Cs super skills

창의적 역량이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능력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소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이란 새롭고, 적절하거나 유용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변수들과 대상들을 결합시키는 능력이다(Morris et al., 2013). 김춘근(2015)은 기업 설립 후 기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초기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가 가져야 할 역량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창의성 및 창의적 역량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표 2-4>와 같다.

<표 2-4> 창의성 및 창의적 역량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연구자	내용
Amabile(1989)	창의성이란 조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유용한 아이디어 산출 임.
James(1990)	창의성이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을 해결하려는 방법 모색, 추측으로 우선 가설을 세워서 해결책과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며, 재검토하고 최종적 결과물을 도출하며 평가해가는 과정.
Runco(1991)	창의성은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능력 임.
Vygotsky(2004)	창의성에 대해서 한 개인의 내면의 정신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과 네트워킹과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Morris(2013)	창의적 역량이란 새롭고, 적절하거나 유용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변수들과 대상들을 결합시키는 능력임.
이경화, 이경훈 (2014)	창의성에 대해 남과 다른 독특함, 대체로 새로움, 기발함,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적절한 것을 생각하기 등을 의미 함.
김춘근(2015)	창의적 역량이란 기업 설립 후 기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초기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가 가져야 할 역량의 정도 임.
연구자 의견	창의적 역량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자주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임.

자료 : 연구자 재정리

## 2.2 창업의지

### 2.2.1 창업의지의 개념

창업의지는 연구자에 따라 창업의도라고 하며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는 회사를 장래에 창업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창업관련 선행연구는 창업자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이 창업의지라는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대부분의 연구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관점도 창업자 개인특성에서 법과 제도 등 외부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임교순·전인오, 2015).

의지는 일반적으로 어떤 동기에 기초하여 어떤 목적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단하여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이라 정의 할 수 있다(심완섭·이은재, 2015).

Fishbein과 Ajzen(1975)은 창업의지에 대하여 창업에 대한 의도적 태도라 하였고, Shapero와 Sokol(1982)은 “창업 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에서 창업의지란 지각된 욕구와 지각된 적성, 행동성향으로 나누며, 지각된 욕구란 개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창업에 대한 개인의 매력이라 하였고, 지각된 적성에 대하여는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라 하였으며, 행동성향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라 하였다.

Timmons et al.(1987)는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Katz and Gatner(1988)는 창업의지는 실질적인 창업 여부가 아니라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창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창업의지는 새로운 벤처를 만들거나 기존 벤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Bird, 1988). Grant(1996)는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 하였다. 윤방섭(2004)도 창업의도를 창업에 대한 행위로 의도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안승권(2016)은 창업의지에 대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창업)하고자하는 대학생들의 의도라고 하였다.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창업의 첫 단계로써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미래에 창업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의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연구자	내 용
Fishbein & Ajzen(1975)	창업에 대한 의도적 태도임.
Shapero & Sokol(1982)	창업의지란 지각된 욕구와 지각된 적성, 행동성향으로 나누며, 지각된 욕구란 개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창업에 대한 개인의 매력이라 하였고, 지각된 적성에 대하여는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라 하였고, 행동성향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라 함.
Katz & Gatner(1988)	실질적인 창업 여부가 아니라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
Bird(1988)	새로운 벤처를 만들거나 기존 벤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Grant(1996)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내리는 것임.
윤방섭(2012)	창업에 대한 행위로 의도적 태도를 나타냄.
윤남수(2012)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함.
안승권(2016)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창업)하고자하는 대학생들의 의도 임.
연구자 의견	기업을 창업할 하겠다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 냄.

자료: 연구자 재정리

## 2.2.2 창업의지의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Shapero와 Sokol(1982)이 제시한 “창업 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을 추가로 들 수 있다. 창업 이벤트 모델에서 창업을 일생에 일어나는 큰 사건(Event)으로 보고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에서 시작된 동기가 기업가적 프로세스로 확대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기업가적 경로에 대한 긍정적인 유입과 부정적 유입으로 나누면서, 긍정적인 유입으로 직장동료, 멘토, 투자가, 고객으로부터 유입을 들었고 부정적인 유입일 수 있는 강제이주, 해고, 해외전출, 이혼, 군제대, 졸업 등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이렇듯 기업가적 이벤트 모형에서는 개인적 상황과 환경 요인의 결합이 한 개인의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정책적인 관점으로써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창업의지는 창업을 수행하는 행동을 더 잘 설명하거나 더 잘 예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창업이 기회를 강조하는 생각의 방식이고, 기회를 발굴하는 프로세스는 명백하게 개인의 의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윤남수(2012)는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개인의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과정으로 창업의지가 있어야 창업행동으로 나타나 기업을 창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창업의지는 기업을 설립하는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Smith와 Miner(1984)는 창업가의 심리특성과 배경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심리특성으로 성취욕구, 위험감수 성향, 통제의 소재 등과 배경특성으로 교육수준, 가족배경, 경험이라 하였다.

창업의지에 관하여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개인특성요인과 심리적 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에서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수립 등으로 창업교육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성순, 2009). 하규수·김상범·오성배(2010)도 창업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라 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개인의 창업의도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심리적, 개인적, 환경적 요인의 변수들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박시사와 강성일(2007)은 심리적 특성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내적 통제요소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예측변수 중 심리적 특성요인의 상대적 중요성과 인적자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고, 이는 행동의 선행변수이며 규범, 태도, 지각된 타당성의 결과변수로서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로 의지를 강조한 합리적 기대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연호와 양동우(2008)는 개인적 특성인 경력 지향성의 유형과 사회문화적인 요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를 통해 창업동기부여와 창업의지를 높인다고 보았다. Ferreira 등(2012)에 의하면, 창업의지 결정요인은 자기신뢰,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에 대한 인식 또는 위험감수성, 통제에 대한 내적 인식,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등이 제시된다.

육창완과 전인오(2014)는 개인적인 특성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은 창업의지와 창업멘토링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창업환경요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창업멘토링이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혔다. 즉 창업의지는 개인적인 특성요인인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으며,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원세력, 성공적 모델 역할, 상호적 인식 등도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Turker & Selcuk(2009)은 창업교육지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지원,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적 지원 그리고 환경적 지원이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immons(1994)는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면, 성공적인 벤처기업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남춘애(2012)도 비즈쿨 프로그램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의 경험(횟수)와 창업교육 도움 정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김혜선·박배진, 2009). 교육내용도 체험형 학습이 이론형 학습보다 더 높은 창업의지를 자극하였다(김용태, 2017). 또한, 주암(20178)도 창업교육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이 높고, 적절한 창업교육과 연계되고, 창업교육이 유용하며, 이론보다는 실천중심의 교육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자금지원, 교육지원 및 마케팅지원의 세 가지 변수인 창업지원정책은 창업가정신을 통해서 창의의지에 간접적으로 정의

영향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임교순과 전인오(2015)는 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 인프라 지원제도의 5가지로 설정하고 이들 5개의 변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가설로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이들 변수들에 대한 경로분석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안승권(2016)은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의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창업)하고자하는 대학생들의 의도라고 하였다. 그는 창업교육 지원이 창업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현철(2018)은 정부지원정책인 자금, 기술, 경영, 인프라 지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경영지원 측정항목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 시장 분석, 마케팅 지원, 수출·판로지원, 경영 정보 제공, 멘토링 지원 등이며, 여기에서의 구성항목은 창업컨설팅임을 알 수 있다.

<표 2-6>과 같이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개인적 특성, 환경 요인,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창업의지까지만 이루어지고 창업행동까지 연구한 논문은 극히 적다.

<표 2-6>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내 용
Shapero & Sokol(1982)	개인적 상황과 환경 요인의 결합이 한 개인의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정책적인 관점으로써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Smith & Miner(1984)	창업가의 심리특성과 배경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심리특성으로 성취욕구, 위험감수 성향, 통제 의 소재 등과 배경특성으로 교육수준, 가족배경, 경험 임.
Timmons(1994)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면, 성공적인 벤처기업수가 증가 함.



Krueger, Reilly & Carsrud(2000)	창업의지는 창업을 수행하는 행동을 더 잘 설명하거나 더 잘 예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
Turker & Selcuk(2009)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지원,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적 지원 그리고 환경적 지원이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침.
Ferreira et al.(2012)	창업의지 결정요인은 자기신뢰,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에 대한 인식 또는 위험 감수성, 통제에 대한 내적 인식,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등이 제시 함.
박시사·강성일(2007)	심리적 특성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내적 통제요소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함.
유연호·양동우(2008)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의 유형과 사회문화적인 요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를 통해 창업동기부여와 창업의지를 높인다고 봄.
김성순(2009)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개인특성요인과 심리적 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에서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수립 등으로 창업교육이 영향을 미친다고 봄.
윤남수(2012)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지가 선행되어야 함.
하규수·김상범·오성배 (2010)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라 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개인의 창업의도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 임.
남춘애(2012)	비즈쿨 프로그램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침.
육창완·전인오(2014)	개인적인 특성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줌.
박남규·김명숙 · 고종욱(2015)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침.
노현철(2018)	자금, 기술, 경영, 인프라지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 함.

자료: 연구자 재정리



### 2.2.2.1 창업의지의 연구모델

창업의지 연구모델로는 대표적으로는 자기효능감개념 모델(Bandura, 1993)과 계획행동이론(Ajzen, 1991), 창업이벤트 모델(Sahpero & Shokol, 1982), 창업의도 모델(Linan & Chen, 2009)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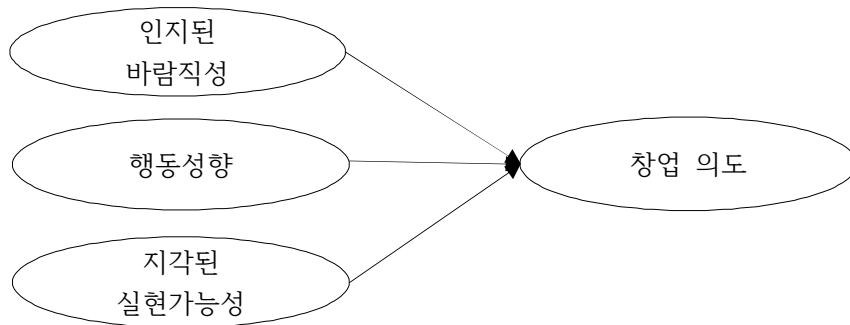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을 창업의지 모델로 적용하였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이유는 첫째, 계획된 행동연구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모형의 설명력이 정교하고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Fayolle et al., 2006; Shook et al., 2003). 둘째, 대다수 기존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행동의도와 행동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창업의지가 종속변수였던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초기 창업가 행동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가 역량(창업가역량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 창업의지(행동태도), 창업행동(행동), 창업교육(조절변수)의 측면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청년의 창업의사결정의 통합 모형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Bandura(1993)은 자기효능감개념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환경과 행동의 상호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요인이 인간행동의 일방향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행동주의에 반대하는 모델이다. 인간행동, 개인적요인(인지적, 생물학적, 정서적 요인), 환경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삼요인 상호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기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즉, 자기효능감)을 강조한 것이다. Bandura의 주장은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Ajzen(1991)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하여는 모든 행동은 어느 정도의 계획이 필요하고 그 행동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다.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의도로 자발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은 기업가의 독립심, 창업위험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가정하는 이론이다.

<그림 2-2>와 같이 인지된 바람직성, 행동성향, 그리고 지각된 실현가능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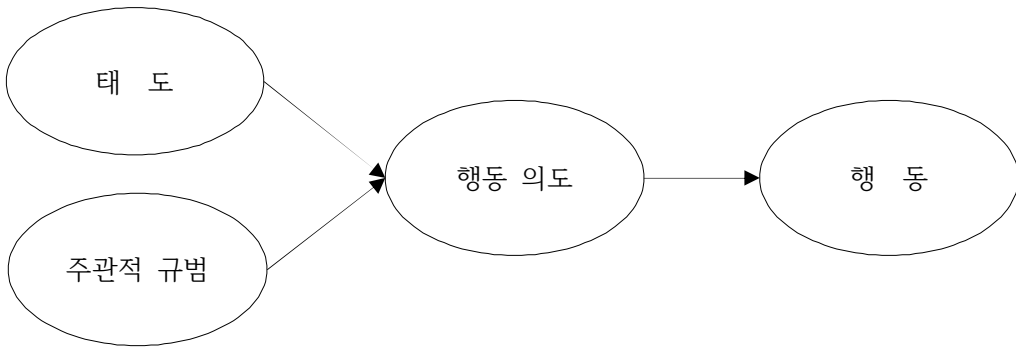


<그림 2-2> 창업 이벤트모델

Linan & Chen(2009)의 창업의도 모델은 계획행동이론(TPB)의 확장모델이다. 의도의 구성에서 창업의도는 항상 세 가지 동기적 변수인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지된 주관적 규범(즉, 사회적 가치)가 창업태도나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 2.2.2.2 Ajzen의 계획행동이론

Ajzen과 Fishbein(1980)은 <그림 2-3>과 같이 개인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합리적으로 미리 생각하고 실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위이론을 근거로 창업의지(의도)는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Krueger(1993)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창업의지를 제시하여, 본 연구는 창업가 약량을 가진 청년이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창업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Ajzen과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은 2가지 변인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행동의 목표를 필요로 하고, 행동의 목표가 더 확고하다면 그 사람은 더 노력할 것이고, 즉,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하는 것이다.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대상을 선호,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타인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아져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2-3> 합리적 행위이론

Ajzen(1991)은 합리적 행위이론을 보완하여 <그림 2-4>와 같이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와 이에 따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리되는 지각(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 변인을 추가한 것이다. 또, 어떻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창업으로 발전되는가를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모형이다(Krueger & Carsrud,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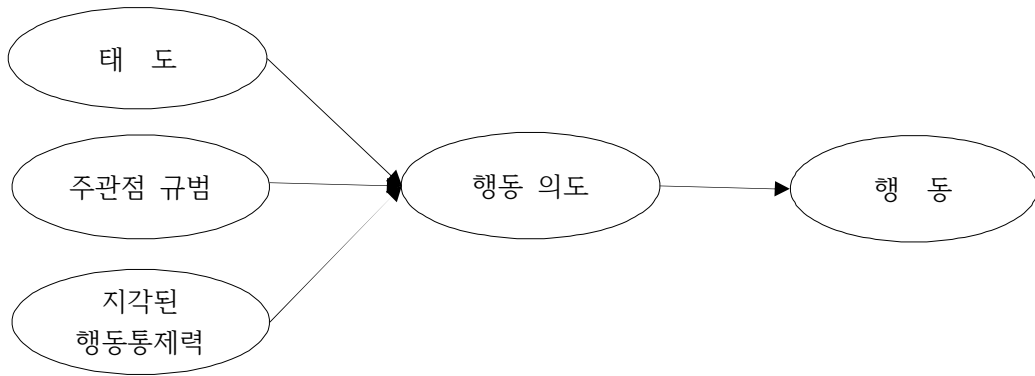
개인의 창업의사결정 과정과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창업의지가 있어야 하며,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의 핵심요소로서, 의도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창업은 개인의 창업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의도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은 3가지 요인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태도는 행동에 대한 선호로서 긍정적 평가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말한다.

둘째, 주관적 규범은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만일 자신이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말한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신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와 그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에 따라 기술적인 역량과 창의적인 역량을 소유한 청년 창업가는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때 창업의도로 연결될 수 있기에 창업가 역량을 창업의지의 선행변수로 보았으며,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창업행동 종합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림 2-4> 계획행동이론

## 2.3 창업 행동

### 2.3.1 창업 행동의 개념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창업의도가 없이는 창업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lee & Wong,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구들이 창업의지까지만 연구하거나, 창업의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한 부분이 기존연구의 한계점이다. 일반적으로 창업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창업의지에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창업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구는 창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과연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연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청년이 주 대상이기에 중·장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장경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한 부분이다.

창업행동은 창업과 행동에 대한 합성어로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창업행동은 아이템이 선정되면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아이템이 선정부터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이 창업행동이다.

창업가는 비전이 있어야 창업할 의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 창업할 행동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ynolds(1991)는 성장 가능한 신생 기업이 창업되어 발

전과정을 거쳐 정점에 달하도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창업가들은 창업을 위한 정보 및 아이템을 수집하며 같이 할 인력을 모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마련하고, 시설 및 장비를 도입하는 등 창업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창업은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하거나 실패시 중단하는 창업가들의 인지적 차이를 규명하는 기회를 학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하다(Reynolds, 2007).

창업가과정은 모험정신의 발견과 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Farmer et al., 2009). 초기 창업가들이 목표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찾고 도전하고 향상시키는 창업가과정의 개념적 측면이 발견이다. 이는 모험정신의 식별과 개선이다. 창업가들이 자원을 습득하고 시장에 진입하거나 창조함으로써 모험정신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이 이용이다.

창업가들이 창업가 혹은 혁신자로서의 자신의 관점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였다(Hellstrom & Berglund, 2002). 창업가는 창업가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다르게 인식한다. 강한 창업가정신은 창업가의 창업활동과 관련되어야 한다. Cardon et al.(2009)은 창업가의 열정을 창업가의 활동에서 경험한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강력한 긍정적 마음이라 하였다. 이는 강한 창업가 열망이 행동으로 실현될 때 창업가에게 강한 열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긍정적 정서는 다양한 창업가활동, 노력, 미래지향 중심과 관련되어 있으며 열정은 목표를 추진하면서 창업가활동 및 지속에 영향을 줄 때 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Farmer et al., 2009).

창업행동은 창업자의 특성이운데 실제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이며, 발견행동과 개척활동으로 구분된다(김재호, 2013). 그는 발견행동에는 창업아이디어의 규명과 재발견,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탐색, 토론, 교육 활동, 업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정의 가능여부, 시간 투여 여부 및 기회포착 노력 여부로 구분하고, 개척행동으로는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실행과정, 자금 투여 시점 인지, 본인 자금의 투여 여부, 직원 구인 활동, 특허 등 지적 재산권 취득 활동, 창업 준비를 위한 시간 확대 노력으로 구분하였다.

창업행동은 기회발견 행동과 기회활용 행동으로 구분되며, 실제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으로 창업가 특성이다(임아름, 2015). 그는 기회발견은 다양한 창업활동, 노력 및 미래 기회 초점을 의미하며, 기회발견 프로세스는 모험적인 아이디어 개발, 결정,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기회활용은 기회인식과 기회활용으로 구분

하면서 기회인식이 모험적 정신의 발전이고 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기초한 행동 결정이자 현실화를 위해 취해지는 행동으로 자원의 습득, 조정, 시장형성을 포함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한 목표지향을 위한 창업가적 노력과 열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Davidsson(2003)는 기회인식과 활용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창업과정의 개념화를 사용하였다. Shane & Venkataraman(2000)도 창업행동을 기회인식과정과 기회활용과정으로 구분하면서 기회인식과정은 초기 인식과 나아가 모험정신에 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반면, 기회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로 구분하고 있다. Timmons(1994)도 창업행동을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으로 정의하면서 기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회추구의 타이밍이 기업의 향후 성장에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회발견의 적절한 순간을 강조하였다.

Vesper(1990)는 사업기회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이미 사업기회와 관련된 제반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그는 좋은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사람은 아이디어를 오히려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라 하였다. 기회발견은 전 직장으로부터 발견, 이전 직장 업무와 관련된 사업아이템,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해당 산업의 기술보유능력으로 구분하였고, 사업기회를 접하게 되는 7가지 유형으로 기대치 않은 초대, 전 직장, 권리의 획득, 자기 고용, 취미, 지인과의 만남, 단순한 행인의 관찰로 분류하였다.

임교순(2016)은 창업아이디어 규명과 재발견,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탐색, 토론, 교육활동, 업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정의 가능여부, 시간투여 여부 및 기회포착 여부를 기회 발견으로 정의하였다.

박지혜(2016)는 창업행동에 대하여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으로 구분하면서 기회발견을 다양한 창업활동, 노력 및 미래기회 초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회발견 프로세스는 모험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관련된 결정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기회활용은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한 행동 즉, 목표지향을 위한 창업가적 노력과 열정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시장의 수요와 자원의 결합을 인식하는 절차가 기회의 발견이며, 장래 유망한 사업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이동하거나 전환하는 것으로(Venkataraman, 1997), 특히 외부환경과 창업자의 역량이 결합하면 기업가적 기민함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회를 추구

할 수 있게 된다(Shapero, 1982).

이처럼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표 2-7>과 같이 창업행동에 대하여 기회발견(인식), 기회활용으로 분류하며 기회발견은 기회에 인식과 모험정신에 대한 증진을 의미하고, 기회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행동을 분류하고 있다.

<표 2-7> 창업행동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연구자	내 용
Vesper(1990)	기회발견은 전 직장에서부터 발견, 이전 직장 업무와 관련된 사업아이템,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해당산업의 기술보유능력으로 구분하였고, 사업기회를 접하게 되는 7가지 유형으로 기대치 않은 초대, 전 직장, 권리의 획득, 자기 고용, 취미, 지인과의 만남, 단순한 행인의 관찰로 분류 함.
Stevenson(1994)	기회를 ‘현재 통제 가능한 자원에 관계없이 조직 내 외부의 개인들이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상황’ 으로 정의 내리고, 기회는 특정시간, 상황, 개인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함.
Shane & Venkataraman (2000)	창업행동을 기회인식 과정과 기회활용 과정으로 구분하고 기회인식 과정은 초기 인식과 나아가 모험정신에 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반면, 기회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로 구분 함.
김재호(2013)	창업자의 특성가운데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으로 의미하고, 발견행동과 개척활동으로 구분. 발견행동을 아이디어 규명과 재발견,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활동, 업종 관계자의 네트워킹, 시간투여여부 등으로 정의하고, 개척행동을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실행과정으로, 직원구인활동, 특허활동 등으로 정의 함.
임아름(2015)	창업자의 특성가운데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으로 기회발견행동과 기회활용행동으로 구분 함. 기회발견은 다양한 창업활동, 노력 및 미래 기회 초점을 의미하며, 기회발견 프로세스는 모험적인 아이디어 개발,



	<p>결정,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기회활용은 기회인식과 기회활용으로 구분하면서 기회인식이 모험적 정신의 발전이고, 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기초한 행동 결정이자 현실화를 위해 취해지는 행동으로 자원의 습득, 조정, 시장형성을 포함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한 목표지향을 위한 창업가적 노력과 열정을 의미.</p>
박지혜(2016)	<p>창업행동에 대하여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으로 구분하면서 기회발견은 다양한 창업활동, 노력 및 미래기회 초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회발견 프로세스는 모험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관련된 결정 및 행동으로 정의.</p>
연구자 의견	<p>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창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하고, 인재를 모집하고,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을 배우는 것 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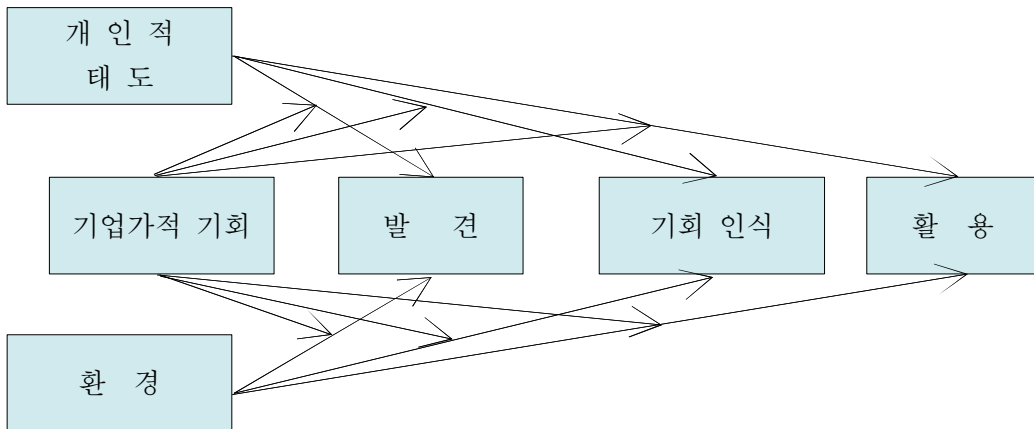
자료 : 연구자 재정리

### 2.3.2 Shane의 창업행동이론

본 연구의 추가적인 기본 모델이 된 Shane et al.(2003)의 창업행동과정을 살펴보면, 창업행동의 과정에서 개인적 태도와 환경적 요인의 동기요인이 각각 발견행동과 기회개척, 행동으로 직접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기업가적 기회가 영향을 미치는 창업과정 모델 <그림 2-5>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실제 실행단계에 이르기 전에 발견단계와 개척단계가 선행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창업을 하는 활동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창업자원을 획득하고, 이용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결정 등은 창업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인간의 동기는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동기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차이는 누가 창업기회를 추구하고, 누가 자원을 획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창업의 전 과정에 착수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출처 : Shane et al.(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57-279).

<그림 2-5> 창업행동의 과정

창업과정에서 기회의 발견은 기회와 관련된 창업자의 이전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창업자의 선형적 지식이 일종의 지적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정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 경험과 기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Venkataraman, 1997).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인식한 기회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회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고객에게 공급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적 자원과 금융자원을 모으고, 조직을 설계하고, 고객을 모집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즉, 창업동기가 각각의 단계에서 인지적 요인, 기회 및 환경적 영향력과 조화를 이루어 창업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창업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가는 과정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Shane, Locke & Collins, 2003).

신생 벤처기업의 출현은 신생기업가의 자원의 특성과 신생기업가가 직면한 환경적 조건이 들어맞은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Shane, 2003). 이는 기회 탐색과정과 기회에 대한 고도의 '기민성'을 통해서(Kirzner, 1997), 신생기업가는 객관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그러한 현상을 이용하기 위한 활동을 취하며, 창업가의 기업가적 활동까지도 창업활동의 개념도 포함한다(Shane, 2003).

본 연구는 창업가적인 역량인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인 역량을 소유한 창업가는 기업가적인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써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환경적 요인이 적합할 때 창업행동(발견과 및 기회인식,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모델을 적용

한다. 다만, 창업의 과정에서 창업의지가 필수적인 과정(Krueger, Reilly & Carsrud, 2000 ; 윤남수, 2012)이기에 창업의지를 매개변수로 하고, 창업교육이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 2.3.3 창업행동의 선행연구

창업행동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되는 사업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창업과정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어떤 사업기회를 발견하느냐는 향후 기업의 방향과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회발견은 창업자에게 전략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창업자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구상, 탐색, 토론,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다. 기회발견은 사업 가능한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자는 직장 경력 및 주위 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광고, 각종 창업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다. 아이디어 발견이 곧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 시제품 개발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게 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예비창업자에게 대한 연구가 종속변수가 창업의지까지 되어 있고, 창업행동에 대한 연구는 극히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창업행동 중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논의, 창업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논의, 창업기회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 투자, 인재모집, 창업을 시작하기 위한 교육 참여,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GEM(Global Entrepreneurial Monitor)의 2009년도 한국보고서에는 창업활동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서 4단계의 유형으로 설명된 창업활동 과정 중 1단계는 초기 창업자활동으로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려는 초기창업활동 단계이며, 이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작성, 새로운 조직구축, 외부자본 도입, 기본 설비장비 구축 등을 수행하게 되고, 2단계는 태동기 창업활동으로서 창업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3단계는 창업시작 후 3개월에서 3년 5개월의 업력중심의 활동이고, 마지막 4단계는 안정기 소유경영활동으로 이미 기반이 잡힌 기업을 42개월 이상 소유하고 경영해 온 창업기업가들로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략적인

창업활동을 한다(이승배, 2013).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창업자 행동(창업의도와 기회발견)은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창업의도와 기회발견의 속성을 갖고 있는 초기창업자 행동이 경영성과와 창업자의 창업결과만족 속성을 갖고 있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승배, 2013).

Kantis et al.(2002)은 창업활동과정을 창업초기단계, 창업단계, 초기발전단계로 구분하고, 창업초기단계에서는 창업의도와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창업 후 3년간의 초기발전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자금조달 등 경영문제의 해결을 통해 창업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시기이다.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창업가 연구에서 청년창업가가 성공적인 창업을 하고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기회발견을 통해 기회활용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임아름, 2015).

박경애(2017)는 딱 전문점의 지각된 창업위험요인이 창업의도에 따라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창업활동에 대하여 창업의도를 가진 예비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회는 기회활용이라는 창업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발견된 기회가 활용을 이어질 때 비로소 구체적인 창업 활동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창업행동은 창업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창업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2.4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 2.4.1 창업교육의 개념

창업교육이란 창업과 관련한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교육, 각 지자체의 창업교육,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등 각종 정부기관,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행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창업교육에 대해 Bechard & Toulouse(1998)는 소기업 개발, 비즈니스 창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형식화된 가르침이라고 정의하였고, Kourilsky(1995)는 기회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자원을 배분하여 모험기업을 창업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Rae(2004)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Ronstadt(1985)는 창업교육이란 사업 아이디어 탐색, 사업계획의 구체화,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Hills(1988)도 신규 사업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창업이 중요한 직업선택의 대안으로써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창업교육의 주요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 계획부터 절차, 방법 등을 가르치고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방법을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 활동(나상균, 2016)으로, 지금 당장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가올 미래의 창업자로서 사업과 경영을 가르치는 교육이다(박재환·김용태, 2009). 또한,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과 관련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교육이다(이재석·이상명, 2015; 정헌배, 2017).

이처럼 학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창업방법을 이해하고, 지식을 함양하도록 창업의 계획,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훈련하며, 교육하여 자질과 기술을 가르쳐서 기회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8> 창업교육에 관한 정의

연구자	내 용
Bechard & Toulouse(1998)	소기업 개발, 비즈니스 창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형식화된 가르침이라고 정의 함.
Kourilsky(1995)	기회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자원을 배분하여 모험기업을 창업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하였음.

Rae(2004)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함.
Ronstadt(1985)	창업교육이란 사업 아이디어 탐색, 사업계획의 구체화,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함.
Hills(1988)	신규 사업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정의 함.
나상균(2016)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 계획부터 절차, 방법 등을 가르치고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방법을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 활동 이라 함.
박재환·김용태, (2009)	지금 당장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가올 미래의 창업자로서 사업과 경영을 가르치는 교육이라 함.
이재석·이상명 (2015) 정헌배(2017).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과 관련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교육 임.
연구자 의견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교육으로써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창업초기(7년)에 대한 경영교육 임.

자료 : 연구자 재정리

전통적인 직업교육은 기술적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지만,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 역량을 보유한 사람과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 창업교육을 받으면 창업에 대한 지식,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선택,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의 절차, 창업실패 및 성공사례 등 까지 배울 수 있기에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Imel(1989)은 창업교육 수강자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및 피고용자 입장에서 고용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창업교육 수강자가 창업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Ronstadt(1985)는 창업가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 보다는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Timmons et al.(1987)은 창업을 위한 역량에 대하여 창업가가 본인의 학습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역량이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역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였다.

창업가가 타고나는 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관건이다. 만일 타고 난다고 하면 창업교육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창업교육은 모험심과 정열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어 그 열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이다(박은주, 2012).

정태화(1996)도 학생들이 졸업 후 창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노사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윤희(2004)는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이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및 창업능력 배양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업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Clow(1997)는 학교에서부터 창업교육을 시켜 기업가정신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의 목적, 경제의 구조 등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Vesper & McMullan(1988)은 창업교육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한정하면서, 성공적인 창업은 다양하지만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하였다.

Hamidi 등(2008)은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욱 높은 창업의 창업의지를 갖는 다고 하면서 창업정신 또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이 보다 창조적 기질이 강하다 하였다.

목영두(2011)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한 결과 실질적인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교육에서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Bruno(1998)는 창업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경영, 회계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 자금의 흐름에 대한 지식, 고용 정책, 법적 지식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김문성과 이준우(2017)는 아이디어 도출교육과 사업화 전략교육을 제시하여, 실천적인 창업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raaijenbrink & Groen & Bos(2010)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지원에서 창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며 창업과 관련된 강좌나 워크숍, 학위 등을 제공하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컨셉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지원을 통하여 창업자 개인이 아닌 창업기업에 창업 후반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 하였다. 실습교육에서 멘토링도 창업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Piperopoulos & Dimov, 2015).

창업교육을 확산되는데 국내에서는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이우진·황보운, 2015), 교육수요자 및 교육공급자, 교육프로그램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창업교육의 설계를 통해 교육학적 관점,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창업 전·후 과정을 포함한 콘텐츠가 필요하다(정헌배, 2008).

미국 대학 창업교육의 경우는 창업교육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교육중심형, 지역밀착형, 창업지원 유도형이라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이태현 등, 2015).

창업교육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추세이다(박재성, 2018).

주암(2018)은 기업가정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론보다는 실습교육을 통해 자극하고,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패보다는 성공사례를 제공하는 방법이 좋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성공창업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창업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적 및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여 창업할 의지가 생겼다면 창업 전에 창업교육을 받으면 보다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창업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창업교육의 필요성은 <표 2-9>와 같다.

<표 2-9> 창업교육의 필요성

연구자	내 용
Timmons et al. (1987)	창업을 위한 역량에 대하여 창업가가 본인의 학습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역량이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역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함.
Vesper & McMullan (1988)	창업교육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한정하면서, 성공적인 창업은 다양하지만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있음.
Clow (1997)	학교에서부터 창업교육을 시켜 기업가정신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의 목적, 경제의 구조 등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Bruno (1998)	창업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경영, 회계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 자금의 흐름에 대한 지식, 고용 정책, 법적 지식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봄.
Hamidi et al. (2008)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욱 높은 창업의 창업의지를 갖는 다고 하면서 창업정신 또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이 보다 창조적 기질이 강하다 함.
목영두 (2011)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한 결과 실질적인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교육에서 창업교육이 필요함.
안태욱 (2017)	창업교육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자립하며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역량과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 임.

자료: 연구자 재정리

창업교육은 고등학교 교육부터, 대학교육에 까지 도입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우선시하였으나 점차 창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여 청년 창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실업자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자의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있어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직업세계 변화로 인해 진로교육 차원으로 창업교육이 강화 되고 있다.

대학 창업교육에 대해서 단순히 실무적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의 기능은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창업교육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자립하며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역량과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안태욱, 2017). 창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다양한 아이템 개발을 위한 창업교육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교육 또한,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기술창업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기존 교수 외에도, 창업전문가, 각 창업성공 CEO, 벤처창업가 등을 통하여 현장 중심적이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의적, 참여형, 문제해결 중심,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역량 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 2.4.2 창업교육의 내용

창업교육의 내용으로는 크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국내 창업교육 현황에도 알 수 있듯이 국내 대학교도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으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론교육은 청년기업가정신, 아이디어 탐색,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절차, 사업타당성 분석,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상권분석 방법 등 창업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창업강의는 주로 창업컨설팅회사, 창업지원기관 등에 근무하는 현장전문가들을 통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창업교육의 내용에 대해 허남수와 최덕철(2000)은 창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창업 이전 단계, 창업 개시 단계, 창업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창업 이전단계에서는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창업의욕 고취 시키고, 창업개시 단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사업아이디어의 구상, 사업계획의 작성 등의 실행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창업 이후의 경영 단계에서는 기존의 경영 관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목영두(2011)는 대학에서 창업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창업지식 및 기술로 창업환경 분석 및 창업기회 탐색, 사업개념 개발, 창업가정신, 창업가 정신과 창업역량 개발, 창업과 성장영역으로 나누었다. 창업환경 및 창업기회 탐색 분야에는 사업기회 탐색 및 사업가치 평가, 신기술 동향 및 신규 비즈니스 추세 분석, 시장조사 분석 기법, 미래사회의 변화 분석, 창업환경 변화 분석, 창업환경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업개념 개발로는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 분석, 회사설립과 창업조직의 구축, 사업아이디어의 발상법, 창업절차 및 창업지원제도를 제시하였다. 창업가 정신과 창업역량 개발로는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창조성과 혁신프로세스, 창업가정신, 창업가의 특성과 리더십, 창업자금 조달과 재무, 분야별 창업 이해, 창업회계와 세무, 창업관련 법규 이해 및 활용을 제시하였다. 창업과 성장 분야로는 창업기업의 마케팅 전략, 창업기업의 경영전략, 창업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신상품 및 신사업 기획, 사내창업가 정신을 제시하였다.

실습교육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를 통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창업할 아이템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의 창업도 해당할 수 있다. 모의 창업은 팀을 구성하여

실제 각종 학교 및 학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시 지원을 받아 아이템 개발 차원에서 진행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Gartner& Vesper(1997)의 강의 진행방식과 창업교과목의 성과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한 졸업생의 특강, 기업가의 창업 실제사례 소개 등을 통한 강의는 성과가 높은 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업가와의 인터뷰 및 관련서적 리뷰 등은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헌배(2008)가 연구한 결과에서도 창업대학원생 창업교육 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이론교육이 실습교육형태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이론교육을 중요시 할 경우 실질적인 사업진행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목영두(2011)는 창업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항목으로 아래와 같은 교육지원과 네트워크지원, 창업실행지원, 연구활동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표 2-10> 창업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 항목

구분	지원필요항목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연구</li> <li>· 전문가와의 코칭</li> <li>·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진단클리닉</li> <li>· 인턴십</li> <li>·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li> </ul>
네트워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가와의 네트워크</li> <li>· 창업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li> <li>· 동문 네트워크</li> <li>· 전문 네트워크(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등)</li> </ul>
창업실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창업지원 프로그램</li> <li>· 모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li> </ul>
연구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창업동아리</li> <li>· 학술지 발행</li> <li>· 학술행사 개최</li> </ul>

자료 : 목영두(2011).

Anjan(2005)은 창업교육에 적합한 대상 학생들을 모으고 적절한 교육적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창업교육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하였다. 이는 창업의 교육의 내용과 환경 등 복합적 요인들이 결합해서 창업교육의 성공 요소로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 2.4.3 국내 창업교육 현황

### 2.4.3.1 창업교육현황

교육부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창업교육강좌 현황을 살펴보면 313개교 강좌에, 10,461개 강좌수에 학생창업자수는 1,328명, 창업기업은 1,191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 비교했을 때 창업 강좌수가 늘어난 것은 창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창업 강좌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1> 창업교육 현황

창업교육강좌	총강좌수		학생창업자 (2016년)	창업기업 (2016년)
	2016년	2015년		
313개교	10,461개	4,262개	1,328명	1,191사

자료 :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국내 대학교의 창업교육 진행현황(2014-2016)을 살펴보면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면서 이론형과목 실습형 과목으로 분류되고 교양과목의 이론형 과목의 강좌수는 4,325개, 실습형 과목의 강좌수는 739개 이며, 전공 과목은 이론형 과목의 강좌수는 3,850개, 실습형 과목의 강좌수는 1,406개로 분류하고 있다.

<표 2-12> 국내 대학교의 창업교육 진행현황

년도	대학수	정규창업강좌							
		교양과목				전공과목			
		이론형 과목		실습형과목		이론형 과목		실습형과목	
		강좌수	이수자수	강좌수	이수자수	강좌수	이수자수	강좌수	이수자수
2014	300개	2,062	128,250	241	10,053	1,750	60,392	775	21,300
2015	315개	1,428	169,401	245	11,067	1,865	84,133	890	31,267
2016	327개	4,325	199,227	739	25,593	3,850	110,318	1,406	36,960

자료 : 대학 알리미.

창업활동현황을 살펴보면 327개 학교에 5,490개 동아리에 45,456명의 학생이 창업하며, 창업강좌수는 36,209회, 창업캠프는 730회에 31,98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3> 창업동아리 활동 현황

년도	대학수	창업활동현황						창업교육 전담조직 현황
		창업동아리현황		창업교육센터 현황		창업캠프		
		동아리 수	동아리 참여인원수	소속 교직원수	창업 강좌수	개최 횟수	참여 인원수	교직원수
2014	300개	3,741	37,655	37,655	1,185			
2015	315개	4,433	38,878	38,878	2,031			
2016	327개	5,490	45,456	45,456	36,209	7300	31,986	1,394

자료 : 대학알리미.

### 2.4.3.2 청소년 비즈쿨

중소벤처기업부가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각 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즈쿨(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2017)에서는 청소년 비즈쿨을 통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의 창업(체험)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도전정신, 창의력을 함양하고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있다. 학생들의 열정,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76억원의 규모로 전국 500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모의 창업, 경진대회 등 체험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비즈쿨 체험활동 내용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비즈쿨 체험활동 내용

구분	활동내용	세부행사명	횟수
필수항목	(전담기관 주관) 비즈쿨 캠프	창업영재 새싹캠프, 어린이·중등 기업가정신캠프, 특화캠프 등	연 1회 이상
	(지방청 주관) 지역 공동 비즈쿨 프로그램	지역공동 비즈쿨 프로그램 등	
	전담기관 체험활동 성과활동 참가	비즈쿨 페스티벌, 벤처창업대전 등	
자율선택	대내 비즈쿨 체험교육활동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비즈마켓, 투자 유치 대회, 골든벨 등	연 1회 이상
	창업선도대학 연계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탐방 프로그램 및 창업 전문가 특강 참가	-
	학교 계열별 특화 창업교육프로그램	농업, 공업, IT, 전기, 전자, 화학, 생활 서비스 등 학교특성별 체험프로그램	-

자료: 연구자 재정리.

### 2.4.3.3 창업대학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대학원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창업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부산대 등 5개 대학에 7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석사학위 과정으로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등 지원을 통해 창업전문가 학위과정을 지원하며, 창업전문가 육성을 위한, 창업이론 및 실무 전 분야에 대한 정규교육과정과 국내외 현장연수, 창업멘토 실습 등 실습형 교육을 실시한다. 아래 <표 2-15>는 창업대학원 설치현황이다.

<표 2-15> 창업대학원 설치현황

구분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주)	부산대
대학원명	창업벤처 대학원	글로벌창업 대학원	글로벌창업 대학원	정경·창업 대학원	기술창업 대학원
형태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 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5학기	5학기	5학기

자료 : 연구자 재정리

#### 2.4.3.4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은 만 4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23개소 47억의 예산으로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준비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이며 <표 2-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16>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내용

분야		내용	지원규모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센터	창업교육	- 만 40세이상 (예비)창업자를 위한 제조업·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의 실전창업 교육과정	전국 25개소 내외
	창업지원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을제공 - 경영지원(상담 자문, 교육), 마케팅 지원 등	
에비퇴직자 맞춤교육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 및 멘토 방문 프로그램 운영	전국 30개 기관 내외

자료 : 연구자 채정리

### 2.4.3.5 기타 교육지원 현황

대학기업가센터, 메이커 문화 확산,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스마트 창작터, 청년 혁신가 인큐베이팅,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식재산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등의 다양한 교육지원이 있으며 <표 2-17>과 같다.

<표 2-17> 창업교육 지원현황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 부처
	지원대상	주관기관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 등 학생 등 청소년	초중고교 등 청소년지원센터	765.7	중기부
대학기업가센터	대학생, 교수 등	대학	19	중기부
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과정 희망자	창업대학원	7	중기부
메이커 문화 확산	모든 국민	한국과학창의 재단	87.2	중기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자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9.7	중기부
스마트창작터	창업후 3년 이내 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90	중기부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산업·사회가 직면 한 문제를 해결한 의지가 있는 청년	한국과학창의 재단	18	중기부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286	교육부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	중학생	한국발명진흥회	9	특허청

자료 : 연구자 재정리(K-Strat Up 자료를 바탕으로)



## 2.4.4 국외 창업교육 현황

### 2.4.4.1 미국

미국의 경우 창업교육을 1947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시작하였으며, 1971년 USC에서 창업학 전공을 MBA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였다. 1972년에 학부에서는 창업학 전공을 개설 하였다. 이 시점부터 창업학 분야가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초에는 3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창업학 또는 스몰 비즈니스 코스가 개설 되었으며, 그 수는 1990년대 초에는 1,050개교까지 증가되었다(Solomon et al., 1994). 2000년대에는 1,600개가 넘는 학교에서 2,200개 코스가 개설되었고, 100개가 넘는 센터와 44개 영문 학술지가 운영될 정도로 창업학은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하기에 이르렀다(Katz, 2003).

미국에서는 경영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성숙단계에 도달하는 동안 다른 분야에서도의 수요가 증가하여 창업학은 농업, 공학, 그리고 예술 및 과학 분야의 단과대학에서도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Katz, 2003).

Finkle et al.(2006)이 미국 내의 창업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146개 대학 창업교육센터를 대상으로 학부의 교과과정별 개설과목을 분석에서 창업교육의 교과목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미국 내 대학에서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이 기업가정신, 창업재무, 사업계획서 작성, 소기업관리 그리고 성장전략이다. 반면에 개설된 수가 작은 과목으로는 사내창업, 프랜차이즈, 그리고 기술이전 과목이었다.

미국 내 창업교육 분야의 대표적 대학인 Babson College, 창업학에 특화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Wichita State대학교와 Baylor대학교이다.

#### 가. Babson College

Babson College는 U.S. News & World Report(2009)에서 창업분야의 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이 모두 미국에서 대학순위 1위를 차지한 대학이다. Babson College는 창업학 분야에서 학부 프로그램은 12년 연속, MBA프로그램은 16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http://www3.babson.edu>). 이러한 Babson College의 학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2-18>과 같다.

<표 2-18> Babson College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 분	과 목
필수 1	- 기업가 정신과 벤처기업
필수 2 (택1) 전공선택	- 기업가 벤처 및 사업 계획 - 성장하는 비즈니스 관리
필수 3 (택2) 전공선택	- 기업가 벤처 및 사업 계획 - 가족 경영 - 성장하는 비즈니스 관리 - 벤처 성장 전략 -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가 정신 - 사회적 기업 경영 - 기업가를 위한 가치 판매 - 디자인에 의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 - 기업 경험을 살려라 - 돈 모으기 : 벤처 기업, 엔젤 및 창업 보육 센터 - 가족 기업 - 실시간 사례 연구 - 궁극적 인 기업 도전 - 기업가를 위한 마케팅 - 기업가로서의 가족 - 고난으로부터 기회까지 바라보는 기업가 - 하이테크 기업가 정신 : 기회 평가 또는 고 생존력 - 기술 창업 또는 제품
자유선택	- 상법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경영 커뮤니케이션 - 현대 윤리적 문제 관리 -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 - 성취 전략 - 협상 - 돈, 은행 및 경제 - 기술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제

자료 : 연구자 재정리

### 나. Wichita State University

캔자스 주에 위치한 Wichita State 대학교의 경우 코스소개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필수 12학점, 선택 9학점, 자유학점 등으로 구성되어 <표 2-19>와 같은 다양한 창업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http://www.wichita.edu>).

<표 2-19> Wichita State 대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 분	과 목
코스 소개	- 기업가정신 소개(3)
필수 (12학점)	- 기업가적 경험(3) - 신 벤처 타당성 분석(3) - 기업가 금융(3) - 기업가 성장 및 경영(3) - 성공적인 Buisness Plan 개발(3)
선택 (9학점)	- 의사 결정 및 통제 회계(3) - 비즈니스 협회 법률(3) - 협동 교육(1~3) - 기업가 정신 연구(1~5)
자유선택	- 기업가 정신 인턴쉽(1~3) - 기술 기업가 정신(3) - 판매관리(3) - 재무 관리 (3) - 기업가 정신 특강 (3) - 프로젝트 SIFE (Student in Free Enterprise) - 재무 관리Ⅱ(3) -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3) - 리더 또는 동기 부여(3)

자료 : 연구자 재정리

### 다. Baylor Universit

Baylor대학교는 창업분야의 대표적 잡지인 앙트르프러너지에서 발표하는 창업 학부 프로그램 순위에서의 2008년 12위, 2009년4위, 2010년 2위를 차지했다. Baylor대학교의 창업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2-20>과 같다 (<http://www.baylor.edu>).

<표 2-20> Baylor대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 분	과 목
코스 소개	- 비즈니스 시작 및 관리
필수 1	- 기업 프로세스 - 기업 금융 - 기업 사업 계획
필수 2	- 가족 사업 관리 - 기업가 정신 : 혁신 시작 및 유지 - 사회 기업가 정신 및 경제 개발
필수 3 (택1)	- 기술 기업가 정신 - 비즈니스 인턴쉽 - 국제 기업가 정신 - 유럽 연합의 기업가 정신 - 아시아의 기술 기업가 정신 - 프랜차이즈 : Franchise & Franchisor Perspectives - 사회적 기업가 정신 : 소액 금융 또는 아프리카의 경제 개발
선택	- 기업가 정신 특별 연구 - 국제 기술 기업가 정신 여름 유학 - 기업가 정신 인턴십

자료 : 연구자 재정리

#### 2.4.4.2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든 대학들은 대학내 기술연구소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리, 라이선싱, 벤처창업, 글로벌 마케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벤처창업 활성화 차원의 자금지원정책과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대학연계 기술이전 기관 등을 통해 대학에서 자발적인 창업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가. 트누파(Tnufa)

이스라엘은 트누파(Tnufa)라 하는 ‘창업이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벤처

인큐베이팅 이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의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 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에서 운영하는 트누과는 창업과정에서 시드머니를 벤처캐피탈 협력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평가, 사업개발 서비스, 자금지원, 투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년 미만의 스타트업 및 개인 사업가 및 약500개 중 약 120-130개 정도의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약 20%가 투자유치 혹은 인큐베이터 입주 등 다음단계로 성장하게 된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특별한 상환의무는 없으며, 기업이 성장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1년차 매출의 3%, 2년차부터 원금의 4%를 상환하게 된다.

#### 나. 벤처 인큐베이팅

벤처 인큐베이팅은 ‘창업이전 지원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벤처 인큐베이팅에 연간 4,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평균 80여개의 프로젝트가 약 2년간 인큐베이팅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원된다. 연간 총지원 예산 4,500만 달러 중 정부가 85%, 민간은 15%를 부담하는데 프로젝트별로 50만-8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인큐베이터 운영자는 벤처캐피탈이며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약 6.5억 달러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1991년부터 2012년까지 1,700여개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하였다. 현재까지 1,500여개의 스타트업이 인큐베이팅을 졸업(90%)하였고 졸업한 기업의 60%는 성공적으로 민간투자 3.5억 달러 누적치를 유치하였다. 이스라엘은 창업기반 조성에 있어 인큐베이팅 등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 ‘대출’이 아닌 ‘투자’로서 인식함에 따라 혁신적·모험적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 다. 요즈마(Yozma) 펀드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들 수 있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주도의 펀드인 요즈마(Yozma)펀드는 1993년 출범한 펀드로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해외 벤처캐피탈 이스라엘 투자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1억 달러 지원하고 초기 2억 달러 규모로 출범한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벤처에 대한 외국 투자사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1997년 민영화

되었다. 현재 1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초 1개에 불과했던 벤처캐피탈이 요즈마 펀드의 성공이후 88개로 증가하였으며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2000년에는 2.7%(GDP 대비로 세계 최고수치)에 달하였다.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 부흥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유재필 등, 2013).

### 2.4.4.3 호주

#### 가. Swinburne University

Swinburne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전공체계,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표 2-21>, <표 2-22>와 같다(www.swinburne.edu)

<표 2-21> Swinburne 대학교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 분		과 목
전공 단위 (Professional Major Un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 정신 소개</li> <li>- 조직 및 관리</li> <li>- 관리자 회계</li> <li>- 마케팅 기본 사항</li> <li>- 비즈니스 법률 소개</li> <li>- 미시 경제학</li> <li>- 벤처 개발 입문</li> <li>- 신 벤처 금융</li> <li>- 성장하는 조직 관리</li> <li>- 기업가 정신, 창의력 및 혁신</li> <li>- 조직 예측</li> <li>- 기업 벤처 기업</li> <li>- 예측 이론 및 실습</li> <li>-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책임</li> <li>- 프로젝트 실습</li> </ul>
단위 (Additional Units)	복수 전공	1개의 복수전공 선택 → 해당 전공 내 개설과목 8 units이수
	부전공	2개의 부전공 선택 → 해당 전공 내 개설과목 중 각각 부전공 영역별 4 units이수

자료 : 연구자 채정리

<표 2-22> Swinburne 대학교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구분	과 목
<p>복수전공 (Co-Maj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공동 전공</li> <li>- 상업법 공동 전공</li> <li>- 기업가 정신 및 혁신 공동 전공</li> <li>- 재정 공동 전공</li> <li>- 인적 자원 관리 공동 전공</li> <li>- 국제 비즈니스 공동 전공</li> <li>- 경영 공동 전공</li> <li>- 마케팅 공동 전공</li> <li>- 이탈리아 언어 공동 전공</li> <li>- 일본어 공동 전공</li> </ul>
<p>부전공 (Min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학 상거래 학생 회계</li> <li>- 응용 마케팅 부</li> <li>-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li> <li>- 마케팅 원론</li> <li>- 중국어</li> <li>- 상무부 부장관</li> <li>- 미시경제학</li> <li>- 미시 기업가 정신</li> <li>- 미시 유럽 비즈니스</li> <li>- 미시 예측(Foresight Minor)</li> <li>- 상법 학생 전공을 위한 인적자원관리</li> <li>- 리더십</li> <li>- 조직 행동</li> <li>- 사회적 기업</li> </ul>

자료 : 연구자 재정리

### Ⅲ. 연구 모형의 설계 및 가설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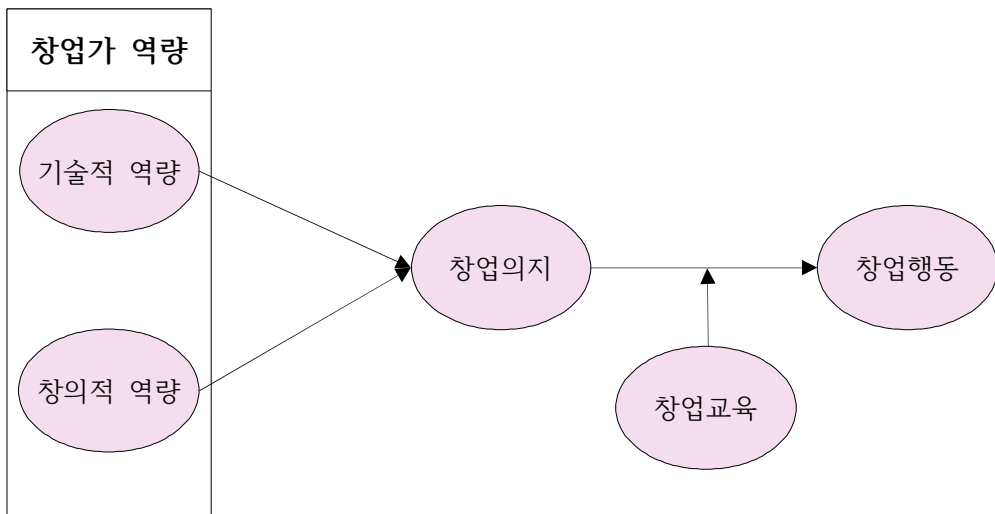
####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청년의 창업가역량 및 창업의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변수들 간의 구조적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모형은 이론모형과 측정모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론모형은 외생개념과 내생개념과의 선형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측정모형은 각 잠재변수가 어떤 측정변수들에 의해 측정되는가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가 역량과 청년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근거로 도출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모형



## 3.2 가설의 설정

### 3.2.1 청년 창업가 역량과 창업의지와 의 관계

창업가의 역량은 직무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다 (Baum, Locke & Smith, 2001). 창업가 역량 중 기술적 역량에 대해 기술창업가가 보유해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는 기술적 역량이며, 제품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기술능력이다(Barney, 1991). Zahra(1996)는 기술 창업기업의 경우 그 속성상 고도의 첨단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전략적 창업의도를 가지고 있다. Chandler & Jansen(1992)도 기업가 역량은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며, 기술적 기능적 교육수준이 높고 해당분야에서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생산성이 높은 성공한 기술창업기업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춘근(2015)은 기술적 역량을 기술에 기반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이며, 기술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윤병선과 서영욱(2016)은 기술적 역량은 창업 초기 기업이 죽음의 계곡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한가지로 보았다. 기술적 역량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 기업 대비 우수한 제품 개발과 생산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원천으로 기술창업기업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윤종록·김형철, 2009).

창업가 역량 중 창의적 역량은 창의성이라 할 수 있는데, 창의성을 박지유·양해술(2014)은 “창의적인 사람이 무엇을 만들다”라는 관점으로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Stenberg(1994)도 무엇인가를 새롭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 하였다. 김일천·김종우·이지우(2004)는 창의성 역량에 대해 혁신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 개발,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차원에서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창의적 역량은 새롭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역량이라 할 수 있는데, 임아름(2015)은 창의적 역량이 창업행동(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 역량을 가진 인재가 혁신적 창업을 이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적 역량은 자신의 업무나 분야에서 창의적 수행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산출하는 특성으로 지식, 태도,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하는 것으로(지은람·주언희, 2012), 창의적 역량이 높으면 창업할 의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 청년의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청년의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청년의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청년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과의 관계

Ajzen과 Fishbein(1980)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합리적으로 미리 생각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합리적 행위이론과 Ajzen(1985)의 행위통제를 추가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하여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행동의도는 창업할 의도(의지)라 할 수 있고, 행동은 창업행동으로 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틀에서 창업에 적용하여 검증하려는 것이다.

Moez, Mohamed, Khalifa & Anissa(2000)는 온라인 쇼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합리적 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한 결과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온라인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행동통제와 의도는 온라인 쇼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명소와 한영석(2001)은 온라인 구매행동 의도는 온라인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검증하였다. 즉,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온라인에 의한 구매행동 또한 온라인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어 창업할 의지(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노상미(2015)도 Ajzen과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기혼여성의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 결정요인의 실증연구에서 출산의도가 높으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분석하여 출산의도를 높이기 위한 출산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창업분야에서도 개인의 창업가의 역량이 높으면 창업의지가 높을 것이고 창업의지가 높으면 창업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양종곤과 이호준(2014)은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조직원의 혁신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Ajzen(1991)의 모델을 적용하여 혁신 태도(직장에서 혁신행동은 행복하고, 바람직하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 혁신 주관적 규범(동의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이해)와 혁신 지각된 행동통제(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고, 능력 있고, 조절하고, 자신감이 있고, 충분히 가능)은 혁신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행동 의도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 분석하였다. 즉, 혁신행동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은 혁신행동에 강한 영향을 분석하여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여 본 연구에서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면 창업부문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대한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청년의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3 창업의지와 매개효과

의지는 하나의 심리학적인 프로세스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지란 특정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에 관심을 두는 마음의 상태인데(Bird, 1988),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바라던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의지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Ajzen, 1991). 따라서 의지는 계획된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최고의 예측 도구로 인정되어 왔다(Bagozzi, Baumgartner & Yi, 1989).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 보았다. 즉, 행동실행의 가능성이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 행동실행과 관련한 지각된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Krueger, Reilly & Carsrud, 2000). 또한 아무리 창업가의 역량이 높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창업의지가 없으면 창업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을 통하여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규명하고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창업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은 창업의지를 가지게 될 것이라 판단되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창업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김용식(2010)도 창업의지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 예비창업가의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능성이라 정의하면서, 창업의지는 예비창업자가 창업과 관련하여 취하는 첫 단계의 행동이면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토대이며, 창업까지의 단계 중에서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청년의 창업가 역량은 실질 창업으로 이루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의지가 창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에서, 창업가역량과 창업행동에 창업의지의 매개효과 검증은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청년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청년의 창업의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1: 기술적 역량과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청년의 창업의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2: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청년의 창업의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3.2.4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조문연(2014)은 창업교육은 창업과정 중에서 창업 준비기간에 창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창업가들의 행동 및 의사결정은 주로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Saeed et al, 2013). 조병주(1996)는 창업교육에 대하여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교육은 개인에게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시켜 창업의지를 촉진시키고 창업활동과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창업교육에 대하여 이유태(2014)는 대학생 다양한 창업교육경험이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 함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으며, Toker & Selcuk(2009)는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지원이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재환 외(2010)는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교육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지자체나 창업 유관기관들이 실시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하는 교육은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단기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 참여자들이 높은 교육성과를 나타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박재환과 김용태(2009)는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제고시키고, 특히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창업의지와 창업스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전인오(2012)도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단기간의 창업교육보다는 횟수가 많을수록 또 일회성 교육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장기 창업교육이 더 기업의 성과가 좋다고 실증연구하고 있다.

박경애(2017)는 딱 전문점의 지각된 창업위험요인이 창업의도에 따라 창업행동에 미치는 연구를 통하여 딱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창업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할 의도를 가지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경우에 창업행동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Clark et al.(1984)은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이 창업의도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실증하였고, Timmons(1994)는 창업교육을 통한 경영방법과 동기부여에 대한 창업교육은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은 청년들에 대한 창업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

게 하는 개선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창업교육을 받은 청년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보다 창업행동으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청년의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 IV. 연구방법

### 4.1 표본의 선정 및 분석방법

#### 4.1.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시스템, 창업의지, 창업행동, 창업가 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6월 12일부터 7월 14일 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창업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총 580부를 설문하여 562부를 회수하였다. 562부중 응답이 부실한 12부를 제외한 550부중 창업교육을 이수한 145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창업박람회는 창업브랜드별로 부스로 운영이 되며, 예비창업자나 업종전환자, 기창업자, 청년 또는 여성창업자 등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한다. 청년들이 창업컨설팅과 창업자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로 창업교육을 받은 청년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4.1.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66.2%, 여자가 33.8%로 남성비율이 높게 조사 되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79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60명(41.4%)으로 나타났으며 40대가 6명(4.1%)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중에 미혼은 97명으로 조사대상 중 66.9%로 나타났으며 기혼은 48명(33.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 103명(7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졸이 17명(11.7%), 고졸이 13명(9.0%), 대학원졸이 12명(8.3%)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창업여부를 살펴보면 예비창업자가 전체 조사대상 중 96명(62.3%)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창업자는 49명(33.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중 대구, 경북이 92명(6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울산, 경남이 19명(13.2%), 수도권이 16명(11.0%), 대전, 충남, 충북이 9명(6.2%), 광주, 전남, 전북이 6명(4.1%)으로 나타났다. 관심업종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25.5%(3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음식점업은 23.4%(34명)으로 나타났다. IT업은 15.9%(23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업은 14.4%(21명), 제조업은 7.6%(11명)으로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별	남	96	66.2
	여	49	33.8
연령	20대	79	54.5
	30대	60	41.4
	40대	6	4.1
학력	고졸	13	9.0
	전문대졸	17	11.7
	대졸	103	71.0
	대학원	12	8.3
결혼	기혼	48	33.1
	미혼	97	66.9
창업여부	예비창업자	96	66.2
	창업자	49	33.8
거주지	수도권	16	11.0
	강원도	2	1.4
	부산, 울산, 경남	19	13.2
	대구, 경북	92	63.4
	대전, 충남, 충북	9	6.2
	광주, 전남, 전북	6	4.1
	제주	1	0.7
관심업종	제조업	11	7.6
	IT업	23	15.9
	유통업	21	14.5
	음식점업	34	23.4
	서비스업	37	25.5
	건설업	3	2.0
	기타	15	10.3
계		145명	100.0



##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을 사용하도록 하며, 기존의 측정변수들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개념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측정변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구성 개념에 대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2.1 기술적 역량

기술적 역량이란 제품 및 개발, 생산과 관련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기술 인력을 확보 및 활용하고,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유 및 활용능력을 의미하며, Chandler & Janseon(1992), 김춘근(2014), 임아름(2015)의 연구를 토대로 아래의 설문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문제 해결능력이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 활용 능력이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 혁신 능력이 있다.
4. 나는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5. 나는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6.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기술 전문가다.

### 4.2.2 창의적 역량

창의적 역량이란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필수적인 창업자의 특성이나 능력으로 아이디어 생산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의미하며, Spenser & Spenser(1994), 김경식(2005), 임아름(2015)의 연구를 토대로 아래의 설문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보다 잘 생각해 낸다.
2. 나는 새로운 생각을 자주 만들어 내는 편이다.
3. 나는 생각이 참신하다는 말을 잘 듣는다.
4. 나는 나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많다.
5. 나는 대담하고 독창적으로 새로운 것을 잘 이용한다.
6.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나만의 방법을 잘 사용한다.
7.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경험이 많다.

### 4.2.3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Ajzen(1982), Kickul et al.(2009), 박남규(2014), 오현준(2014)의 연구를 토대로 아래의 설문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회사를 창업하겠다는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나는 반드시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4. 나는 창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5. 나는 창업에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6. 나는 실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7. 나는 직장보다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 4.2.4 창업행동

창업행동이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김재호, 2013; 임아름, 2015)으로 아이디어 탐색활동, 기회포착활동을 의미하며 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봉상(2004), 김재호(2013), 임아름(2015)의 연구를 토대로 아래의 설문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창업할 때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 할 것이다.
2. 나는 창업제품과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의논 할 것이다.
3. 나는 창업기회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4. 나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5. 나는 창업을 같이할 인재를 모집할 것이다.
6. 나는 창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창업교육을 통해 배울 것이다.
7. 나는 창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 볼 것이다.

#### 4.2.5 창업교육

창업교육이란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의식 고취 강화, 창업의지 확대, 창업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Clark et al.(1984), 박남규(2014), 이병권(2014)의 연구를 토대로 아래의 설문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창업교육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나는 창업교육이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일 것이라 생각한다.
4. 나는 창업교육이 창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 생각한다.
5. 나는 창업교육을 주위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6. 나는 창업교육의 내용이 새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 4.3 자료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SPSS 19.0과 AMOS 19.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연구가설을 검증을 공분산구조모형으로 하였다. 가정한 원인-결과 변수들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조방정식 모형은 선행 방정식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특히 행동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기업수익의 결정, 사회적 지위와 성취도와의 관계, 직무의 분류 등의 관계분석에서 많이 사용한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의 집단이 종속변수와의 선형적인 함수 관계를 유도하고, 설정된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변수의 결과를 예측하는 통계적인 기법에 반하여, 구조방정식분석은 변수들 간의 연결 관계가 가정되고 검증됨으로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을 쉽게 표현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분석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두 방법이 측정변수들만을 다룬다는 것이다. 반면에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된 변수뿐 만 아니라 잠재변수까지 포함함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설명하고 현상을 규명하는 설명력이 높다. 여기서 잠재변수는 인자분석에서 공통인자와 같이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이야기하며, 비 측정변수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적 모형에 대해 확인적 검증을 행하는 통계방법론으로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일반적인 기술통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값을 분석하고, 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할 것이며, 구성개념의 신뢰성과 타당도 검증 및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검증 및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구성 개념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하고, 창업가 역량(창의적 역량, 기술적 역량), 창업의지, 창업행동, 창업교육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AMOS 19.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4.4 설문지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맞게 질문의 범위를 크게 선행연구를 통해 4개 범주로 34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첫째는 독립변수인 창업가 역량 중 기술적 역량 6문항, 창의적 역량 7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둘째는 매개변수인 창업의지 7문항으로 설정했다.

셋째는 창업행동 7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넷째는 조절변수인 창업교육 7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창업여부, 창업교육 여부, 거주지, 관심 업종의 8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진 것으로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을 선별적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최종 확정된 설문지의 구성은 <표 4-2>와 같다.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평가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설문지의 구성

변수	문항수	문항 번호	출처
기술적 역량	6	I-1. 1 ~ 6	Chandler & Janseon(1992) 김춘근(2014) 임아름(2015)
창의적 역량	7	I-2. 1 ~ 7	Spenser & Spencer(1993) 김경식(2005) 임아름(2015)
창업의지	7	II. 1 ~ 7	Ajzen(1982) Kickul et al.(2009) 박남규(2014), 오현준(2014)
창업 행동	7	III. 1 ~ 7	고봉상(2004), 김재호(2013) 임아름(2015)
창업교육	7	IV. 1~7	Clark et al.(1984) 박남규(2014), 이병권(2014)
성별	1	V-1	Grant(1996) 임아름(2015) 박남규(2014)
연령	1	V-2	
학력	1	V-3	
결혼	1	V-4	
창업여부	1	V-5	
창업교육여부	1	V-6	
거주지	1	V-7	
관심업종	1	V-8	

## V. 실증분석

### 5.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에 앞서 가설검정에 필요한 각 구성개념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 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것이 내적 일관성 검정법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한다. Cronbach's Alpha에 의한 신뢰성 검정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으로 측정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특정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기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을 그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거나, 전체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수정된 총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낮고 Alpha값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항목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5.1.1 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성분석

타당성은 그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게 된다. 타당성의 평가는 그 방법에 따라 개념 타당성, 기준관련 타당성, 내용 타당성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용 타당성은 특정한 측정도구의 대표성에 관한 개념이며, 기준 관련타당성은 특정 변수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개념 타당성은 변수들의 특성 측정과 관련한 것으로서 측정자체의 정확성에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념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흔히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판별타당성과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에 있어서는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으로는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는 <표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4개 문항 중 12개(기술적 역량 1,2, 창의적 역량 4, 6, 창업의지 3,4, 창업행동 2,5,7 창업교육 1,3,4.)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문항이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변수의 삭제된 문항은 각 요인별로 적재치(Factor Loading)를 살펴 0.6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창의적 역량, 기술적 역량, 창업의지, 창업교육, 창업행동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을 설명해주는 설명 분산은 16.911%, 기술적 역량을 설명해주는 설명 분산은 13.742%, 창업의지를 설명해주는 설명 분산은 15.392%, 창업교육 요인의 설명 분산은 12.277%으로 도출되었고, 창업행동 요인의 설명 분산은 11.530%로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누적 분산 설명비율은 69.853%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준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복 유사한 질문은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값을 제거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창의적 역량은  $\alpha=0.931$ , 기술적 역량은  $\alpha=0.8743$ , 창업의지는  $\alpha=0.883$ , 창업교육은  $\alpha=0.862$ , 창업행동은  $\alpha=0.812$ 로 나타났다.



<표 5-1> 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성 분석

	창의적 역량	창업의지	기술적 역량	창업교육	창업행동
창의적 역량2	<u>.867</u>	.138	.141	.027	.078
창의적 역량1	<u>.855</u>	.132	.175	.036	.063
창의적 역량3	<u>.820</u>	.189	.147	.106	.146
창의적 역량5	<u>.769</u>	.161	.214	.130	.032
창의적 역량7	<u>.740</u>	.148	.260	.070	.059
창업의지2	.090	<u>.799</u>	.225	.081	.128
창업의지1	.072	<u>.771</u>	.225	.068	.147
창업의지7	.211	<u>.753</u>	.043	.128	.181
창업의지6	.197	<u>.717</u>	.052	.101	.151
창업의지5	.189	<u>.711</u>	.191	.126	.068
기술적 역량4	.178	.132	<u>.871</u>	.056	.049
기술적 역량5	.211	.165	<u>.856</u>	.049	.025
기술적 역량6	.212	.148	<u>.835</u>	.073	-.005
기술적 역량3	.323	.226	<u>.686</u>	.118	.089
창업교육6	.071	.145	.016	<u>.839</u>	.102
창업교육7	.046	.138	.108	<u>.830</u>	-.009
창업교육5	.113	.166	.090	<u>.776</u>	.148
창업교육2	.064	-.018	.038	<u>.723</u>	.181
창업행동2	.091	.095	.078	.160	<u>.871</u>
창업행동1	.001	.016	.074	.156	<u>.842</u>
창업행동3	.130	.371	-.054	.140	<u>.679</u>
창업행동4	.134	.336	.019	.008	<u>.632</u>
고유치	3.721	3.386	3.023	2.701	2.537
설명분산(%)	16.911	15.392	13.742	12.277	11.530
누적분산(%)	16.911	32.303	46.046	58.323	69.853
Cronbach's Alpha	.931	.883	.874	.862	.812

## 5.2 상관관계 분석

### 5.2.1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한 분석에 사용할 잠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잠재변수들간의 상관이 높은 변수들 간에 존재 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분산 증가 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Tolerance)를 검증하였다.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변수의 다중공선성 검증결과는 <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2>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창업 의지	창업 행동	창업 교육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기술적 역량	3.37	.663	1					.715	1.228
창의적 역량	3.51	.598	.476**	1				.916	1.012
창업 의지	3.29	.591	.392**	.389**	1			.654	1.316
창업 행동	3.19	.602	.168**	.250**	.430**	1		.704	1.436
창업 교육	3.53	.612	.223**	.224**	.289**	.289**	1	-	-

\* $p < .05$ , \*\* $p < .01$

구체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청년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은 모든 잠재변수들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창의역량( $r=.476$ ), 창업의지 ( $r=.392$ ), 창업행동 ( $r=.168$ ), 창업교육( $r=.223$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은 모든 잠재변수들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창업의지 ( $r=.389$ ), 창업행동( $r=.250$ ), 창의교육역량( $r=.224$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창업의지와 잠재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잠재변수들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창업행동( $r=.430$ ), 창업교육( $r=.289$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창업행동과의 잠재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업교육( $r=.289$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 공선성에 있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 분산팽창계수)값이 10이하 이고 공차(Tolerance)값은 1에 가깝기 크기 때문에 청년 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 5.3 연구모형의 분석

### 5.3.1 측정모형 및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창업가 역량(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을 제시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창업의지 그리고 결과변수로는 창업행동을 선정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적합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OS 19.0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구조분석에서 적합성 검증은 모델의 부합지수와 경로계수에 의해 검증되어질 수 있다(김계수, 2005). 가설 경로의 부합지수는 20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대적합지수( $\chi^2$ , GFI, RMR 등), 증분적합지수(NFI, CFI 등), 간명적합지수(PNFI, AGFI 등) 등이 이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RMR은 실제 자료의 값과 모형에 의해 산출된 값을 표준화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모형이며 적합도가 낮은 모형일수록 더 큰 양의 값을 나타낸다. GFI는 표본크기의 변화와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자료에서의 적부를 나타내 준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R2과 비슷하며, 모형의 절대적인 부합정도의 판단에 주로 이용된다(김계수, 2005).

경로계수를 통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적합도 평가는 예비적 적합도, 전반적 적합도, 모형의 내부구조 적합도 등으로 구성된다(Bagozzi & Yi,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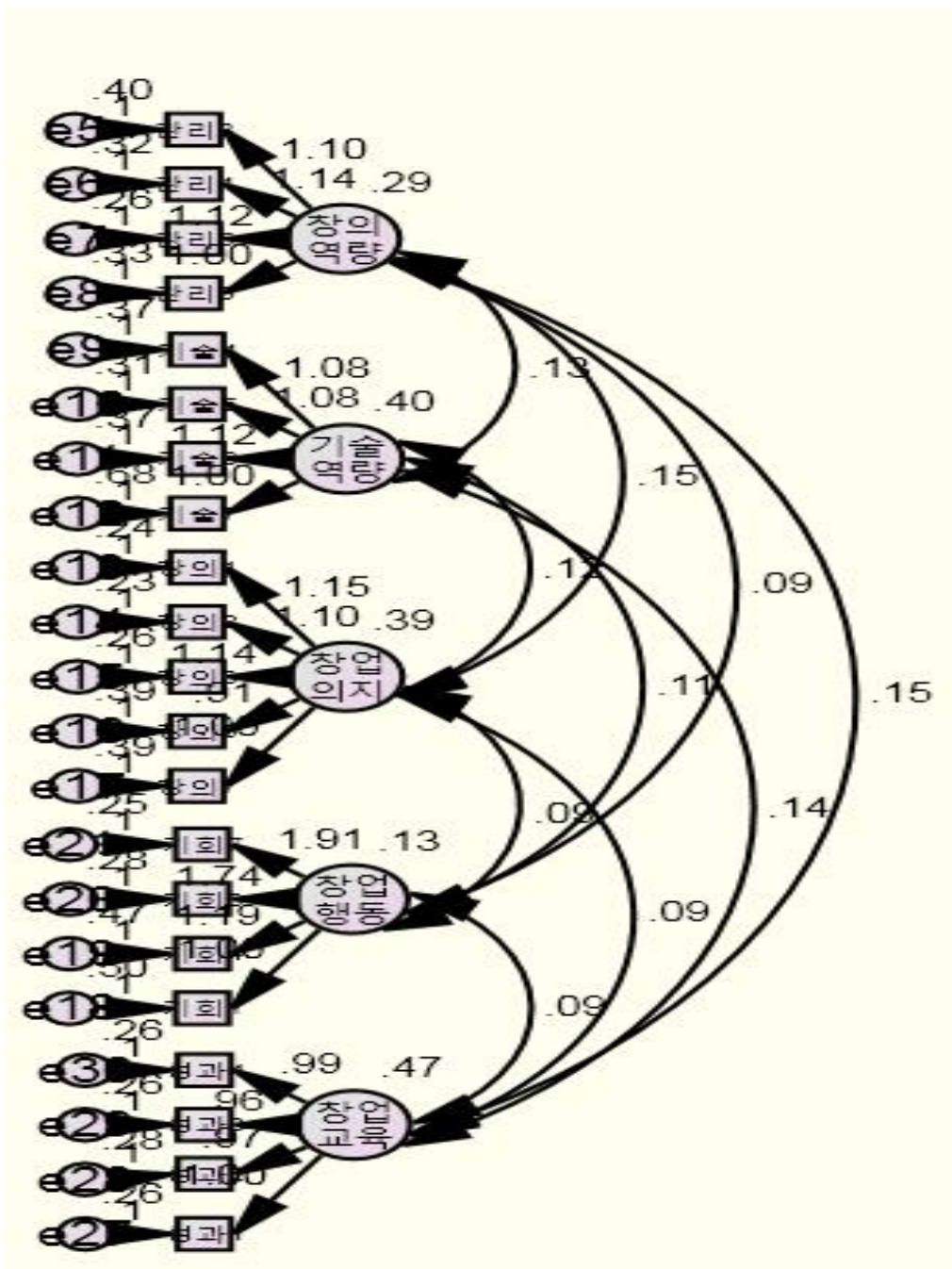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살펴보는 데 기초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증분지수, 원소 간 평균차이(RMR), 결정계수 등에서 적정한 수치가 얻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GFI, NFI, CFI, RMSEA를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GFI, NFI, CFI는 0.8~0.9 이상이고, RMR과 RMSEA는 0.05~0.08 이하이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된다(Bagozzi & Yi, 1988; Bagozzi & Dholakia, 2002).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기에는 요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독립변수와 내생변수를 따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하고 결측치가 있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3>에 나타나 있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633,813$  ( $p<.001$ )으로 모형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형이 적합하지 않지만  $\chi^2$  검증은 귀무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너무 쉽게 기각이 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존재함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921, TLI=.909, CFI=.893는 모두 약 .90이상이며, RMSEA=.052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측정모형분석은 <그림 5-1>과 같다.

<표 5-3> 독립변수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hi^2$	df	NFI	TLI	CFI	RMSEA	p
기준값	-	-	>.90	>.90	>.90	<.60*	>.05
연구모형	633.813	251	.921	.909	.893	.052	.000

\*: RMSEA 가<.06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10이면 나쁜 적합도 (홍세희, 2000).



<그림 5-1> 측정모형분석

<표 5-4> 요인 간 공분산(상관관계)

			공분산 추정치	상관관계 추정치
기술적 역량	↔	창의적 역량	.236	.443
기술적 역량	↔	창업의지	.200	.384
기술적 역량	↔	창업행동	.266	.290
기술적 역량	↔	창업교육	.190	.397
창의적 역량	↔	창업의지	.275	.189
창의적 역량	↔	창업행동	.289	.166
창의적 역량	↔	창업교육	.278	.389
창업의지	↔	창업행동	.214	.409
창업교육	↔	창업교육	.253	.366
창업행동	↔	창업교육	.155	.218

<표 5-4>, <표 5-5>에는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회귀 값을 제시하였다.

<표 5-5> 전체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관측 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S.E)	t-value (C.R)	P-value	개념신뢰도 (AVE)
기술적 역량	→	X1	1.000	.444	-	-	-	.816
	→	X2	.700	.587	.100	7.036	.000	
	→	X3	.742	.673	.091	8.431	.000	
	→	X4	.614	.770	.101	7.105	.000	
창의적 역량	→	X5	1.000	.755	-	-	-	.728
	→	X6	.841	.742	.100	7.036	.000	
	→	X7	.823	.521	.096	7.761	.000	
	→	X8	.799	.770	.101	6.105	.000	
	→	X9	.069	.683	.112	6.753	.000	

창업의지	→ X10	1.000	.849	-	-	-	.714
	→ X11	1.014	.877	.038	26.398	.000	
	→ X12	1.013	.862	.039	25.842	.000	
	→ X13	.802	.820	.066	12.097	.000	
창업행동	→ X14	1.000	.719	-	-	-	.730
	→ X15	.863	.716	.065	12.830	.000	
	→ X16	.765	.732	.064	11.977	.000	
	→ X17	.692	.722	.068	11.228	.000	
창업교육	→ X18	1.000	.824	-	-	-	.693
	→ X19	1.095	.847	.070	15.631	.000	
	→ X20	.939	.872	.062	15.109	.000	
	→ X21	.943	.792	.065	14.616	.000	

\*\*\*  $p < .001$

### 5.3.2 직접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다음 <표 5-6>에 제시되어 있다. 유의수준 .05에서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 창업가의 역량 중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창업의지도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의미 있는 영향력 ( $t=8.083$ ,  $p<.000$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술적 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의 발전 경로를 예측하고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하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청년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을 고취시키고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도 창업의지에 의미 있는 영향력( $t=4.489, p<.000$ )을 보였고 이는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은 개인의 동기 부여 정도와 성격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외 개인을 둘러싼 환경 측면도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창업 환경에 정착되어 있을 때 개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따라서 창의적 역량은 청년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인 창업의지는 종속변인이 창업행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 $t=3.422, p<.000$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에 대한 의지가 증가할수록 창업행동( $\beta=.305$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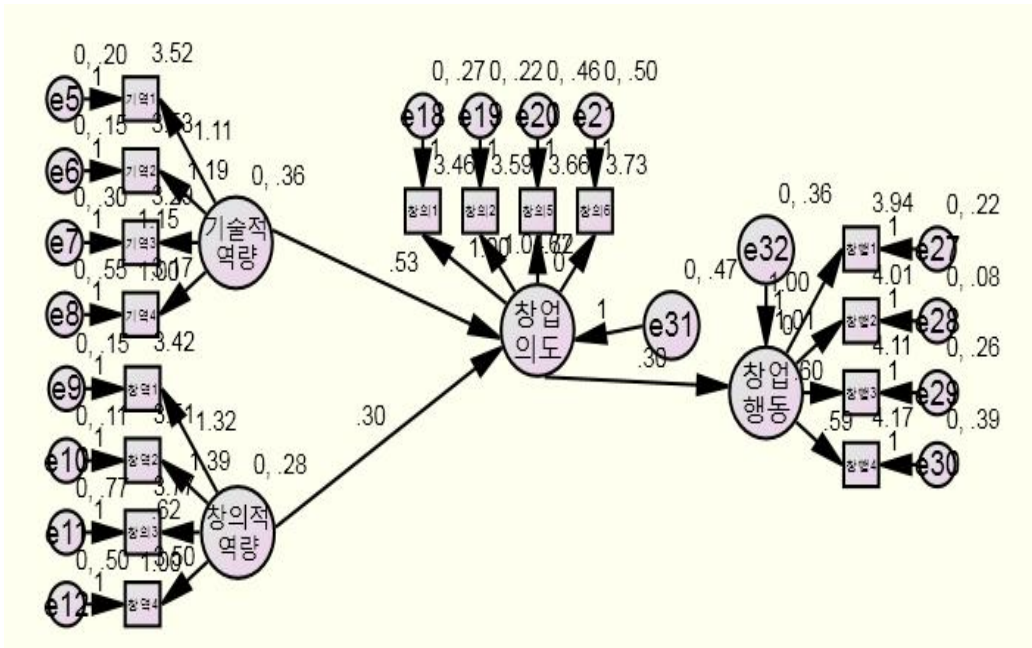
<표 5-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p
기술적 역량	→	창업의지	.533	.455	8.083	.000***
창의적 역량	→	창업의지	.301	.207	4.489	.000***
창업의지	→	창업행동	.305	.364	3.422	.000***

\* $p<.05$ , \*\* $p<.01$ , \*\*\*  $p<.001$



이를 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경로계수

### 5.3.3 간접효과 확인(매개효과)

#### 5.3.3.1 부트스트래핑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잠재변수들의 직접효과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최종 모형의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가는 경로인 직접효과 (direct effect)와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내며 다른 변수에 의해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그리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인 총 효과(total effect)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에서 매개변수(창업의지)로 이르는 경로계수와 매개변수(창업의지)에서 종속변수(창업행동)로 이르는 경로계수를 곱하여 구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분석절차는 먼저, 연구의 표집에서 우선 표집을 1000번 반복하여 1000개의 표집을 추출하고, 둘째, 1000개의 표집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여 각 경로계수에 대한 1000개의 추정치를 구하고, 셋째, 1000개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추정치를 계산한다.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영(零)을 포함하지 않으면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Shrout & Bolger, 2002).

인과모형에서는 총 효과와 더불어 각 경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경로를 분석 할 수 있다.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배병렬, 2007).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통해 효과분해를 하였고, Amos 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매개효과(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obel 검증 또는 부트스트래핑 분석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MacKinnon의(2002)에서 보고하는 매개효과(간접효과)의 표준오차가 부정확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이에 Shrout와 Bolger(2002)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 분석 절차를 제안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절차를 적용하면 비대칭적인 신뢰한계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뤄야한다는 가정을 우회할 수가 있다. 이에 최종 모형에서 유의한 경로로 확인된 청년 창업가의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를 통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적 역량,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창업의지에 대한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은 <표 5-7>과 같다.

<표 5-7> 부트스트래핑 분석에 의한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

외생변수 (독립변인)	내생변수 (매개변인)	내생변수 (종속변인)	표준화된 간접효과	간접효과 신뢰구간
기술적 역량	창업의지	창업행동	.098 (.533 × .184)	.011 ~ .193
창의적 역량			.081 (.301 × .271)	.014 ~ .172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창업의지에 대한 매개효과는  $\beta = .098(.533(\text{기술적 역량에서 창업의지 경로계수}) \times .184(\text{창업의지에서 창업행동 경로계수}))$ 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신뢰구간은 .011에서 .193로 0(零)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창업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0$ ).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창업의지에 대한 매개효과는  $\beta = .081(.301(\text{창의적 역량에서 창업의지 경로계수}) \times .271(\text{창업의지에서 창업행동 경로계수}))$ 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신뢰구간은 .014에서 .172로 0(零)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창업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5$ ).

### 5.3.3.2 소벨 검정

본 연구결과의 창업의지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소벨 검정(Sobel-test)을 실시하였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기술적 역량 및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를 통해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소벨 검정은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전달하는가, 즉,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간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한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소벨 검증 결과값(Z)이 +1.96보다 크거나, -1.9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Baron and Kenny, 1986).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SE_a^2 SE_b^2 + a^2 SE_b^2 + b^2 SE_a^2)}}$$

a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고,  
 b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SE<sub>a</sub>는 a의 표준오차,  
 SE<sub>b</sub>는 b의 표준오차이다.

<표 5-8> 소벨 검정에 의한 매개변인 효과 분석

	경로	Z	p
IV-1	기술적 역량 → 창업의지 → 창업행동	3.104	.003**
IV-2	창의적 역량 → 창업의지 → 창업행동	2.822	.019*

\**p*<.05, \*\**p*<.01, \*\*\* *p*<.001

<표 5-8>은 소벨 검정(Sobel-test)을 통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유의미한 매개변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역량과 창업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창업의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104, *p*<.01).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창업의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Z*=2.822, *p*<.05)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과 창업행동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5.3.4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검증(1)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에 따른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차타당성을 만족해야 한다. 교차타당성의 측정동일성은 요인부하량( $\lambda$ ) 제약모델로 검증하였다. 이는 집단 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로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에 대해서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서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 적재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chi^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은 형태동일성에 내제된 모델이므로  $\chi^2$  검증이 가능하다(김주환·김은주·홍세희, 2006).

검증결과 측정 동일성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의  $\chi^2$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chi^2=4$ ,  $df=3$ ,  $<.000$ ). 또한 적합도 지수인 TLI=.895, CFI=.852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80이상이며, RMSEA=.055로 .08 이하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은 성립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표 5-9>와 같이 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9>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모형	$\chi^2$	df	TLI	CFI	RESEA
model 1	633.813	165	.893	.848	.052
model 2	633.817	168	.895	.852	.055
모형 간 차이검증	$\Delta\chi^2 = 4$	$\Delta df = 3$	$\Delta TLI = .02$	$\Delta CFI = .04$	$\Delta RESEA = .03$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0> 다중집단 분석결과(표준화  $\beta$  기준)

경로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낮은 집단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은 집단	t	결과
창업의지 → 창업행동	.285	.332	2.861**	지지

\* $p < .05$ , \*\* $p < .01$ , \*\*\*  $p < .001$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에 관해 분석한 결과 <표 5-10>에서와 같이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61$ ,  $p < .01$ ). 즉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은 집단은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3.5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검증(2)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좀 더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통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변수인 창업의지와 종속변인인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창업교육에 대한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절변인인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는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 변인을 만들게 될 경우, 회귀분석의 특성상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기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란 각 변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 각각의 데이터 값에서 이 평균을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회귀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조절변인 없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다음으로 조절변인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곱모형으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한 값을 다음 항목으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1단계에 통제변수, 2단계에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고, 3단계에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된 변수들을 삽입하였다.

매개변수인 창업의지와 종속변수인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1>과 같다.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형 3에서 통제변수인 대학졸업의 학력( $\beta=.111$ ,  $p<.05$ ) 함께 매개변수인 창업의지( $\beta=.317$ ,  $p<.001$ )와 조절변수인 창업교육( $\beta=.249$ ,  $p<.001$ )은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27.9%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모형도 적합한 것을 나타냈다 ( $F=44.631$ ,  $p<.001$ ).

그리고 모형 4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에서는 창업교육의 상호작용항( $\beta=.087$ ,  $p<.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R2도 모형 3에 비해 설명력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은 청년의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창업에 대한 의지가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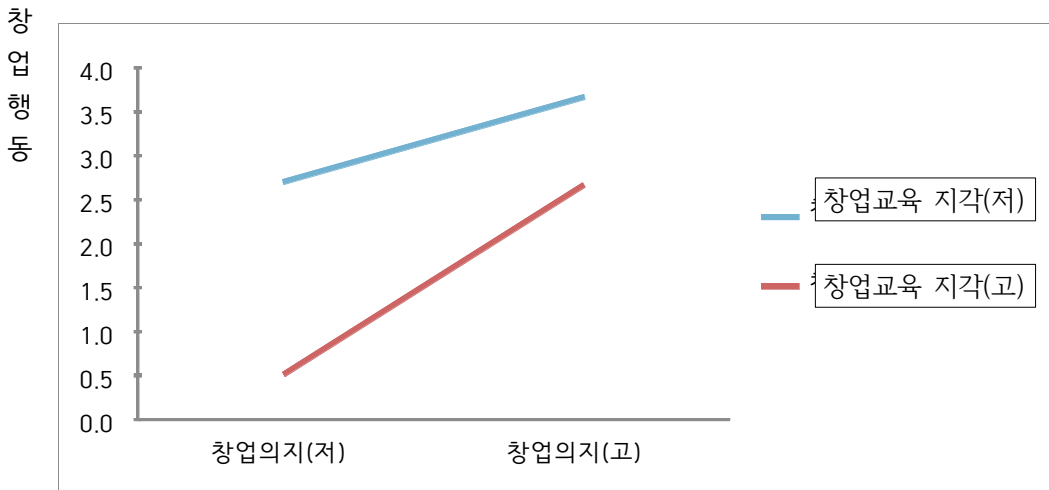
<표 5-11>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측정변수	창업행동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통제변수								
성별	.014	.105	.001	.082	.021	0.94	.012	.081
연령(30대)	.035	.155	.039	.130	.029	.122	.042	.121
학력(대학졸업)	.181***	.115	.142**	.132	.111*	.104	.117**	.106
업종(IT업)	.070	.162	.065	.145	.047	.139	.047	.138
매개/조절변수								
창업의지(B)			.419**	.038	.317***	.043	.353***	.043
창업교육(D)					.249***	.042	.288***	.044

상호작용항				
창업의지 X 창업교육(B×D)				.087* .035
R <sup>2</sup> (Adj R <sup>2</sup> )	.031(.011)	.216(.217)	.279(.342)	.311(.338)
·ΔR <sup>2</sup>		.010	.121	.187
F	3.598*	87.281***	44.631***	5.118**

N=148, \* p<.05, \*\* p<.01, \*\*\* p<.001  
 β: 표준화 회귀계수, SE: 표준오차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창업의지와 창업교육 지각의 평균과 분산을 삽입하여 학습전이를 X축으로 하고, 창업행동을 Y축으로 설정한 후 회귀선을 그리면 <그림 5-3>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창업의지가 낮은 사람은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창업행동에 대한 증분효과가 창업의지가 높은 청년 창업가보다 증분효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5-3>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다시 말해 창업에 의지가 낮은 집단은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에 따라 실제 창업 행동에 대한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고,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집단은 창업교육



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실제 창업행동에 대한 증분효과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증분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은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창업가의 창업의지를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4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표는 <표 5-15>에 제시되어 있다. 직접적인 효과는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분석과 소벨 검정(Sobel-test)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청년 창업가 역량에 따른 청년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면 <표 5-12>와 같다.

<표 5-12> 가설 검증표 1

				$\beta$	t	결과
I-1	기술적 역량	→	창업의지	.533	8.083***	지지
I-2	창의적 역량	→	창업의지	.301	4.489***	지지
I-3	창업의지	→	창업행동	.305	3.422***	지지

\* $p < .05$ , \*\* $p < .01$ , \*\*\* $p < .001$

가설 I-1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083$ ,  $p < .000$ ). 따라서 I-1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I-2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489, p<.000$ ). 따라서 I-2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I-3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422, p<.000$ ). 따라서 I-3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창업의지가 청년 창업가의 역량과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가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3> 가설 검증표 2

외생변수 (독립변인)	내생변수 (매개변인)	내생변수 (종속변인)	표준화된 간접효과	간접효과 신뢰구간
기술적 역량	창업의지	창업행동	.098 (.533 × .184)	.011 ~ .193
창의적 역량			.081 (.301 × .271)	.014 ~ .172

\* $p<.05$ , \*\* $p<.01$ , \*\*\* $p<.001$

창업의지가 청년 창업가의 역량과 창업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표 5-13>의 가설 검증표 2에서 확인 하였다.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업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창업의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창업의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의지와 창업행동간의 관계에서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의 조절효과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4> 가설 검증표 3

경로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낮은 집단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은 집단	t	결과
창업의지 → 창업행동	.285	.332	2.861**	지지

\* $p<.05$ , \*\* $p<.01$ , \*\*\* $p<.001$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교육의 지각에 대한 조절효과에 관해 분석한 결과는 <표 5-14>에서 가설 검증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t=2.861$ ,  $p<0.1$ ). 이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의 양적인면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창업교육에 대해 실질적이고 창업에 도움이 되는 창업교육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에 대한 의지가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의지를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5> 가설 검증 결과표

가설	가설내용	결과
가설 1	청년의 창업가 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1-1	청년의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1-2	청년의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	청년의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3	청년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에서 창업의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지지
가설 3-1	청년의 기술적 역량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에서 창업의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지지
가설 3-2	청년의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에서 창업의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지지
가설 4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청년의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 VI. 결 론

### 6.1 연구 결과의 요약

정부의 다양한 창업정책이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낮은 취업률, 퇴직자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 창업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 및 중장년 실업 해소를 위하여 관련 지원 정책 및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가정신 확산, 창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고실업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확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낮은 고용률이 일반적 현상으로 고착화 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하여 2010년대 초반 3.6%였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성장속에서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사상최고치인 1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고 있다.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이미 한계점에 달하였고, 실제로도 매출액 천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대기업의 3배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기반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 출현하면서 세계 경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 세계 산업영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즉, 창업활성화는 고용효과, 고부가가치 효과를 바탕으로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기술에 기반한 기술창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의 돌파구

가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작고 유연한 조직에 의한 빠르고 민첩한 시장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안승구 등, 2017)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혁신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있는 창업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김성훈 등, 2016).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보면 창업자의 역량개발은 신규 창업확대, 지속적인 성장, 고용 창출, 기업의 생존률 제고 등의 창업활동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예비창업자, 창업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총 580부를 설문하여 562부를 회수하여 부실한 12부를 제외한 550중 이 중 창업교육을 받은 145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많은 예비창업자들은 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의 역량 증대를 위해 양적인 확대 뿐 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향상교육인 질적인 향상을 통한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에 대한 의지가 증가할수록 창업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올바르게 긍정적인 의지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년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간의 창업의지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분석 및 소벨 검정(Sobel-test)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를 통해서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는 청년창업가의 기술적,

창의적 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6.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결과는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창업가 역량은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6.2.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청년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의 창업가역량인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이 창업가 역량을 보유했을 때 창업에 대한 의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창업가 역량 즉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유용한 학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의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학문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창업동기 요인(인적특성, 지원정책,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창업동기요인인 창업가 역량을 연구한 논문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청년 창업행동의 선행요인이 창업의지란 것을 규명하여 학문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셋째, 청년창업가 역량인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과 창업행동과의 관계에서

창업의지가 매개효과 있음을 학문적으로 규명하였다. Shane et al.(2003)은 개인의 태도 및 기업가적 기회, 환경요인이 창업행동으로 주장하였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창업의지가 있어야 창업행동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의 창업의지가 창업가 역량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Shane et al.(2003)의 선행연구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의 선행연구의 모델을 발전시켰다. Ajzen(1991)은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 의도는 행동에 미친다는 계획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Ajzen(1991)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행동을 하기 전에 목표를 필요로 하고 목표가 확고하다면 지각된 행동 통제를 통해서 행동의도가 있다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불러일으키는 선행요인을 청년의 창업가 역량으로 실증 연구하여 Ajzen(1991)의 선행연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청년이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으로 이루어짐을 학문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년이 창업교육에 만족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고취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청년의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로,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창업교육이 조절하는 창업통합모형을 접근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창업프로세스를 학문적으로 규명하였기에 장기적인 창업연구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 6.2.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이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갖추고 창업의지를 갖게 된다면 창업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가들이 갖추어야 할 청년 창업성공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국가가 청년을 관련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며 기술전문가로서 기술 혁신 능력을 갖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게 위해서는 전문 기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2016년 세계경제 포럼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로봇기술, 3D 프린팅 등에 대한 기술교육도 필요하다.

둘째, 창의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의성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창의적 역량은 창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아의 창의성은 성인의 창의성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박영주, 2014) 유아기때부터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창의성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가역량을 보유한 청년들의 사내벤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각 기업에서는 기술적 역량과 창의성 역량이 있는 청년들을 기업 안의 또 다른 기업 즉 사내벤처 형태 운영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가진 청년 직원들이 회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국내 사내벤처팀으로는 1997년 삼성SDS 사내벤처 ‘웰글라이더’로 시작하여 2013년에 독립한 네이버, 또다른 사내벤처 ‘뉴트러스트’로 시작하여 독립한 파수닷컴(2017년 매출액 293억원), LG데이콤의 사내벤처로 시작한 인터파크, 인터파크의 또 다른 사내벤처 ‘구스닥’이 지마켓으로 변신하였으며, 포스코 건설의 사내벤처 1호인 마이다스아이티(2017년 매출액 795억원), 아모레퍼시픽의 사내벤처 국내 향수 시장점유율 1위인 ‘빠방 에스쁘아’등이 있다.

넷째, 창업 친환경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창업가 역량이 뛰어난 국외의 사례를 보면 애플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IT계의 혁신가 스티브잡스, SNS를 선도하는 페이스북을 만들어낸 마크 저커버그, 세계 최대의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를 만든 스티브 첸,페이팔 창업자 피터틸, 인스타그램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 드롭박스 창업자 드류 하우스턴 등이 있기에 국내에서도 창의적 역량과 기술적역량을 함양한 청년들이 세계적인 창업가가 출현될 수 있는 창업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창업에 대한 환경조성은 취업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창업가 역량을 가진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내벤처가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창업가 역량을 가진 청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업에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창업가 역량을 보유한 창업가 역량 발굴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창업가 역량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창업가 역량 발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창업가 역량 발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창업가 역량 측정을 위한 제도 및 표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의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볼 때, 창업가 역량을 소유한 청년들에 대한 창업인프라 구축(국가기관, 학교 등), 창업자금(투·융자, 보조)지원, 창업 보육 및 멘토링,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등의 다양한 국가지원 정책을 펼쳐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청년의 창업의지가 강한 청년이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이 높았을 때 창업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을 높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창업교육에 대한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통합 홍보채널을 준비하여 한다는 점이다. 업종별 창업교육, 수준별 창업교육 등 창업 교육을 차별화하여 창업교육을 홍보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6.2.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 6.2.3.1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지나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통제변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표본추출의 편의를 위해 창업관련 박람회나 세미나 등에 참여한 대상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지역적 편중이나 관심분야에 대한 편중이 다소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한 기업 당 표본수를 균등화하여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비교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대상과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또 다른 변수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6.2.3.2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의 향후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 확대에 대한 실증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미국의 교육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대학교에는 미국의 일부 대학처럼 창업 과목을 교양필수를 지정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교육시간 및 창업 강좌의 확대,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 마련, 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유도 등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창업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에 병행에 대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창업교육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 및 지식제공은 물론이고, 토론형 수업, 업종별 심화교육, 업종별 실습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창업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창업 시뮬레이션 실습과정 등 창업에 실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관, 산, 학, 연 연계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관), 기업(산), 학교(학), 연구소(연)의 연계를 통한 실무형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연구소에는 창업기술을 연구하고 학교에서는 창업을 교육하며 기업에서는 현장중심의 창업교육이 되도록 하고 국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통합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체계적인 청년창업교육이 되도록 창업관련 기관의 통합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창업교육기관이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각 대학 창업교육 등이 창업교육을 공유하여 통합 창업교육 내용과 매뉴얼을 만들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병오(2011). “중소기업 CEO의 창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재학·하규수(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4), 1-12.
- 고봉상(2004).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영훈(2017). “전략적 사고 역량과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2005). “벤처기업가의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수(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 김명소·한영석(2001),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구매행동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17-32.
- 김문성·이준우(2017). “TEC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창업자 역량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2(1), 310-334.
- 김성훈·남정민·정광용(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 김성순(2009).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식(2010).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4), 49-58.
- 김은경(2015). “개인적 경력지향성과 노후준비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일천·김중우·이지우(2004).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19, 282-317.

- 김재호(2013). “사회적창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김은주·홍세희(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 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김춘근(2015). “창업지원시스템과 창업가역량이 초기 기술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박배진(2009), “창업교육 요구도와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73-82.
- 나상균(2016).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 창업성공요인 및 창업성과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과정보연구』, 35(4), 251-268.
- 남춘애(2012). “비즈쿨(Bizcool)교육특성, 사회적지지 및 교육기반특성이 학습 성과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현철(2018).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목영두 (2011).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애(2017). “떡 전문점의 지각된 창업위험 요인이 창업의도에 따라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남규(2014).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연구”,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31(2), 187-204.
- 박은주(2012).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희(2004), “실업계 고등학교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직업교육연구』, 23(3), 1-26.
- 박영주(2014), “유아미술창의성 측정도구 개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혜(2016). “창업가 특성과 창업행동에 따른 창업 성공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성(2018), “4차 산업혁명시대 창업교육 방향성 연구: 창업교육의 유형별 중심”, 『한국창업학회지』, 13(1), 40-67.
- 박재환·김용태(2009).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참여 동기가 창업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2(2), 959-977.
- 박재환·최명길·김용태(2010),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교육성과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11(3), 1085~1094.
- 박지유·양해술(2014), “창업가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2), 97-107.
- 박혜정(2007), “사회적 역할 놀이 활동이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친사회적행동 증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태연(2015). “사내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과 창업의도 및 혁신행동 간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한국: 도서출판 청람.
- 백기동(20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턴트 및 컨설팅사 특성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서인·이성민·장현준. (2015). “기업가정신과 업무경력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기업유형별 기회포착, 기회실현, 위기관리 전략”, 『중소기업연구』, 37(2), 107-146.
- 심완섭·이은재(2015). “대학생의 온·오프라인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44, 371-396
-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태욱(2017). “대학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종곤·이호준(2014),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조직원의 혁신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일경상논집』, 64.

- 유연호·양동우(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1(5), 2247-2368.
- 유재필·강원영·안인희·손문희(2013),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창업환경 분석, 인터넷·정보보호 정책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 육창환·전인오(2014).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4(10).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 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한국산학경영학회,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 윤병선·서영옥(2016). “창업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1(3), 45-6.
- 윤종록·김형철(2009).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차별화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논집』, 23(4), 401-427.
- 윤현덕·서리빈(20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성과에 미치는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연구』, 19(1), 111-144.
- 오현준(2015),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화·유경훈(2014), “창의·인성교육이 초중등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창의력교육연구』, 14(1), 1-16.
- 이병권(2015), “창업동기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배(201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기창업자 행동을 매개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목(1990), “측정이론의 세줄기”, 한국심리학회지 : 인지 및 생물, 2.139-161.
- 이우진·황보윤(2015), “대한민국 창업교육 연대기”, 『벤처창업연구』, 10(3), 171-183.

- 이유태(2014). “대학생 현장체험학습(새가계운동)이 창업의도와 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6(1), 135-157.
- 이운정(2014). “특성화고교에서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1), 175-185
- 이태현·김휘택·김윤경(2015). “미국 주요대학들의 창업 프로그램 분석”, 『벤처 창업연구』, 10(1), 175~185.
- 이창수(2015). “건설기술자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교순·전인오(2015). “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1, 422-432.
- 임아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인오(2012).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역량이 지원과 경영성과 단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2(9), 325-339.
- 정태화(1996), “공고졸업 근로자의 산업현장 적응력 실태조사연구”, 『대한공업 교육학회지』, 21(2), 15-30.
- 정대용·김재형(2015). “창업실패관련 평가와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9(5), 277-301.
- 정대용·한관섭(2012). “기업가적 기대가 창업활동을 매개로 창업결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6(3), 119-142.
- 정헌배(2008).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orea Business Review』, 12(1), 109-128.
- 정헌배(2017), “창업교육의 효율적 설계와 실천방안에 관한고찰”, 『벤처창업연구』, 12(1), 123-132
- 주암(2018). “창업교육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제언”, 『인적자원개발 연구』, 21(3), 161-201.



- 조문연(2014). “기술창업기업 대표자의 창업준비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병주(1996), “창업교육의 교과내용결정모형과 전공과정의 개발방향”, 『한국중소기업학회지』, 18(2), 157-184
- 조영조(2016). “한·중·일·홍콩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은림·주언희(2012). “창의적 인재 역량 측정을 위한 구인 탐색 및 척도 개발”, 『교육 평가 연구』, 25(1), 69-94.
- 채연희(2016).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이규(2007). 『구조방정식 모형』, 무역경영사.
- 하규수·김상범·오성배(2010). “사업경력 유무에 따른 사업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Summer』 .
- 허남수·최덕철(2000), “한국 대학의 벤처교육 현황과 그 과정개발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 27, 5-43.
- 한국과학창의재단(2017), 『월간과학창의』, 45-47.
- 황성용(2013). “자기성장 창의성 프로그램이 성인학습자의 창의성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19.1.(161-177).



## 국외문헌

- Amabile, T. M.(1989). “Growing up creative: Nurturing a lifetime of creativity”. Crown House Publishing Limited.
- Anjan. R.(2005), “ Issu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cision of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Calcutta”, 32(2), 73~84.
- Ajzen, I.(1982), “Equity i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In : J. Greenberg and R. L. Cohen, Editors, Equity and Justice in Social Behavior, Academic Press, New York.
- Ajzen, I.(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A J. Geckman(Eds.),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11-39.
- Ajzen, I.(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 Dorsey Press.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2), 179-211.
-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Ajzen, I., & Madden, T. J.(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53-474
- Audretsch, D. B. (2002). “The dynamic role of small firms : Evidence from the US”, *Small Business Economics*, 18(1), 13-40.
- Audretsch, D. B., et al. (2002). “The Econo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27(2), apr.
- Bagozzi, R. P., & Baumgartner, J., & Yi, Y. (1989).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intentions as mediators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0(1), 35-62.
- Bagozzi, R. P., & Dholakia, U. M. (2002). “Intentional social action in virtual communitie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6(2), 2 - 21.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 - 94.
- Bălăceanu, C., & Apostol D.(2013).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through Human Development Paradigm”, *Knowledge horizons*, 5(1), 61-66.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rney, J.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aron & Kenny(1986), “ How and why criteria defining moderators and mediators differ between the Baron & Kenny and Mac Arthur approach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281-305.
- Baron, Reubeon M., & David A.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 Robert J., Edwin A. Locke, and Ken G. Smith(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echard, J. P., & Toulouse, J. M.(1998). “Validation of a didactic model for the analysis of training objectives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317-332.
- Begley, T. M., & D. P. Boyd(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79-93
- Bettis, R. A., & Hitt, M. A.(1995). “The new competitive landscap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6(S1), 7-19.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runo, F.(1998). The Fort Collins virtual business incubator. *Public Management*, 10-13.
- Burgelman, R. A., & Maidique, M. A., & Wheelwright, S. C.(1996).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2)”, Chicago : Irwin.
- Cardon, M.S., Wincent, J., Singh, J., & Drnovsek, M. (2009). “The nature and experience of entrepreneurial pas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4, 511-32.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andler, G. N., & Hanks S. H.(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 Clark, B. W., & Davis, C. H., & Harnish, V. C.(1984).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2), 26~31.
- Clow, J, E.(1997). Entrepreneurship Education. National Business Education.
- Coombs, Joseph E., & Paul E. Bierly.(2006), “Measuring Technological competence and Performance”, *R&D Management*, 36(4), 421-438.
- Davidsson, P.(2003). “Th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Some suggestions. In J. Katz & D. Shepherd (Eds.)”, *Cognitive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Research*. 6, 315-372.
- Douglas, E. J.(2013). “Reconstru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 identify predisposition for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5), 633-651.
- Drucker, P.(1954). *The Practice of Management*. New York: Harper.
- Farmer, S. M., & Yao. X. & K. Kung-Mcintyre (2009), “The Behavioral Impact of Entrepreneur Identity Aspiration and Pri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9(1), 1-29.

- Fayolle, A., & B. Gailly & N. Lassas-Clerc.(2006),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0(9), 701–720.
- Feldhusen, J. F., & Treffinger, D. J.(1985).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in gifted education.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Ferreira, JJ., & Raposo, ML., & Rodrigues, RG.(2012).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9(3), 424–440.
- Finkle, T. A., & Kuratko, D. F. & Goldsby, M. G. (2006), “An Examination of Entrepreneurship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2), 184–206.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Addison–Wesley.
- Fitzsimmons, J. R., & Douglas, E. J.(2011). “Interaction between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in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4), 431–440.
- Fritsch, M., & Franke, G.(2004). “Innovation, regional knowledge spillovers and R&D cooperation”, *Research policy*, 33(2), 245–255.
- Gartner, W. B., & Mitchell, T. R., & Vesper K. H.(1992). “Acting as if :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 13–31.
- Gartner, W. B. and K. H. Vesper(1997), “Measuring progres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1).
- G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Guan, J., & Ma. N.(2003). “Innovative competence and export performance of Chinese firms”, *Technovation*, 23, 737–747.

- Hamidi DY., & Wennberg K., & Berglund H.(2008). “Creativity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2), 304–320.
- Hellstrom, T. C., & Berglund, H.(2002), “The Innovation Self: Exploring Self among a Group of Technological Innovation”, *Journal of Management Psychology*, 17, 267–286.
- Henderson, R. M., & Clark, K. B.(1990). “Architectural innovation: The reconfiguration of existing product technologies and the failure of established fir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9–30.
- Hills, G. E. (1988). “Variations i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 Empirical Study of an Evolving Fiel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 109–122.
- Imel, Susan(1989), “Entrepreneurship Education.Trend sand Issues Alerts,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370.
- Isaksen, S. G., & Dorval, K. B., & Treffinger, D. J.(2000). Creative approaches to problem solving: A framework for change.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 James, W. K.(1990). Development of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The Technology Teacher*, 49(2), 29–30.
- Kantis, Hugo, Ishida Masahiko & Komori Masahiko(2002).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cs: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ew Firms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Katz, J., & Gartner, W. B.(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atz, J. A.(2003), “The Chronology and Intellectual Trajectory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2), 283–30.
- Kickul J, & Gundry LK, & Barbosa SD.(2009), “Intuition Versus Analysis? Testing Differential Models of Cognitive Styl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the New Venture Creation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09; 33(2): 439–453.

- Kirzner, I. M.(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60–85.
- Klemp Jr, G. O.(1980). The Assessment of Occupational Competence. Final Report: I. Introduction and Overview.
- Kourilsky, M. (1995). “Entrepreneurship Education: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Business Education Forum*, 50(10), 11–15.
- Kraaijenbrink, J., & Groen, A., & Bos, G.(2010). “What do students think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 given by their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9(1), 110–125.
- Krauss, S. I., Frese, M., Friedrich, C., and Unger, J. M. (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 psychological model of success among southern African small business owner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4(3), 315–344.
-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18(1),5–21.
- Krueger, N. F., &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all. S.(1992). “Technological Capitalities and industrialization”, *World Development*, 20(2), 165–186.
- Lee, C., & Lee, K., & Pennings, J. M.(2001). “Internal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s and performance: a study on technology-based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615–640.
- Lee, S. H., & Wong P. K.(2004). “An Exploratory Study of Technopreneurial Intentions: A Career Anchor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1), 7–28.
- Liñán, F., & Chen, Y. W. (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Lippl, C. (2013). The Four Cs of 21st Century Skills. Zuluma Education Trends.<http://zuluma.com/education-trends/four-cs-21st-century-skills/#.VLEHY2SUdew>.
- Lo Choi Tung(2011),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engineering students’, Ph.D. Thesis,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36.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cKinnon, D. P., & Lockwood C. M., &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McDougall, P. P., & Oviatt, B. M., & Shrader, R. C.(2003).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w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1(1), 59–82.
- Mirabile, R. J.(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 Development*. August. 73–77.
- Moez, L., Mohamed, K & Anissa, F.(2000), “What Makes Consumers Buy from Internet? A Longitudinal Study of Online Shopping”,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Part A Systems and Humans*, 30(4), 421–432.
-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Parry, S. B.(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Training Magazine*, 33(7), 48–56.
- Piperopoulos, P., & Dimov, D.(2015).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970–985.

- Prahalad, C. K., & Hamel, G.(1990).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Boston (MA), 235–256.
- Rantanen, T.(2013).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in Uusimaa region in Finl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Journal*, 2(4), 48–65.
- Rae, D.(2004). “ Entrepreneurial learning: a practical model from the creative industries”, *Education Training*, 46(8/9), 492–500.
- Reynolds, P.D.(1991), "Sociology and Entrepreneurship: Concepts and Contribution", *Entrepreneurship and Theory Practice*, 16,(2). 47–70.
- Reynolds, P. D.(2007), “New Firm Creation in the US: A PSED overview”,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31–151.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Romijn, H., & Albaladejo, M.(2002). “Determinants of innovation competence in small electronics and software firms in southeast England”, *Research policy*, 31(7), 1053–1067.
- Runco, M. A.(1991). *Divergent Thinking*. Norwood, N. J: Norwood.
- Saeed, S., Yousafzai, & S. Y., Yani, D. S., M., & Muffatto, M. (2015). “The role of perceived university support in the formation of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1127–1145.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s, and the Business Cycle”, New Brunswick : Transaction.
- Shane, S.(2003).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 Opportunity Nexus*, Cheltenham, U. K.: Elgar.
- Shane, Locke, E. A., &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 257–279.



- Shane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apero, A.(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Sexton & K. Vesper(End.).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Englewood Cliffs, NY : prentice Hall.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hook, C. L., & R. L. Priem & J. E. McGee (2003), “Venture Creation and The Enterprising Individual: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Management*, 29(3), 379-399.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ith, N. R., & Miner, J. B.(1983).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4), 325-340.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 Solomon, G. T., & Weaver, K. M., & Fernald, L. W., & Pedagogical, Jr.(1994), “Methods of Teaching Entrepreneurship: A Historical Perspective”, *Simulation and Gaming*. 25(3). 337-353.
- Spenser, L. M. & Spencer, S.(1994). *Competency assessment methods: History and state of art*, Hay-McBer Research Press.
- Stenberg, R. J.(1994), “Allowing for Thinking Styles”, *Educational Leadership*, 52(3), 36-40.
- Timmons, J. A., & Muzyka, D. F., & Stevenson, H. H., & Bygrave, W. D. (1987). “Opportunity recognition: the core of entrepreneurship”.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09-123.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th century*, Irwin Mc Graw-Holl, Illinois, Fourth Edition. 6(1), 5-20.
- Torrance, E. P.(1959). "Current research on the nature of creative tal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 309.
- Turker, D., & Selcuk, S. S.(2009).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3(2), 142-159.
- Tushman, M. L., & Anderson, P.(1986). "Technological discontinuities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1(3), 439-465.
- Yam, R. C. M., & Guan, J. C., & Pun, K. F., & Tang. E. O. Y.(2004). "An Audi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in Chinese Firms : Some Empirical Findings in Beijing, China", *Research Policy*, 31(3), 543-567.
- Venkataraman, S.(1997),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Cognitive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 Vesper, K. H.(1990),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27-158.
- Vesper, K. H., & McMullan, W. E.(1998). "Entrepreneurship: Today Courses, Tomorrow Degr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1), 7-13.
- Vygotsky, L. S.(2004). "Imagination and creativity in childhood", *Journal of Russian & East European Psychology*, 42(1), 7-97.
- Westphal, L., & Kim L., & Dahlman, C.(1985). "Reflectionson Republic of Korea's Acquisition of Technological competence", *International Technology*.
- L.J. Williams & P.M. Podsakoff(1989). "Longitudinal field methods for studying reciprocal relationships i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Toward improved causal 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11, 247-292.
- Zahra, S. A.(1996). "Technology strategy and financial performance :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the firm's competitive environ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3), 189–219.

Zahra, S. A.(2003). “International expansion of US manufacturing family  
businesses: The effect of ownership and involve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4), 495–512.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박사논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는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본 설문에 기재되는 사항은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결과가 높은 품질의 청년들의 창업지원시스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이 매우 중요하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6월

연구자 :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 성 열  
H·P 010-5607-8585  
Email : sy8585@hanmail.net

지도교수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수 윤 중 록  
H·P 010-6611-6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 다음은 창업가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1 기술적 역량**

NO	설 문 내 용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다	⑤정말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문제 해결능력이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 활용 능력이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혁신 능력이 있다.					
4	나는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5	나는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6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기술 전문가다.					

**I -2 창의적 역량**

NO	설 문 내 용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다	⑤정말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보다 잘 생각해 낸다.					
2	나는 새로운 생각을 자주 만들어 내는 편이다.					
3	나는 생각이 참신하다는 말을 잘 듣는다.					
4	나는 나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많다.					
5	나는 대담하고 독창적으로 새로운 것을 잘 이용한다.					
6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나만의 방법을 잘 사용한다.					
7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경험이 많다.					

**II. 다음은 창업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내용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다	⑤정말 그렇다
1	나는 회사를 창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2	나는 반드시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4	나는 창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5	나는 창업에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6	나는 실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7	나는 직장보다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III. 다음은 창업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내용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다	⑤정말 그렇다
1	나는 창업할 때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 할 것이다.					
2	나는 창업제품과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의논 할 것이다.					
3	나는 창업기회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4	나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5	나는 창업을 같이할 인재를 모집할 것이다.					
6	나는 창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창업 교육을 통해 배울 것이다.					
7	나는 창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 볼 것이다.					

#### IV. 다음은 창업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 문 내 용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다	⑤정말 그렇다
1	나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창업교육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나는 창업교육이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일 것이라 생각한다.					
4	나는 창업교육이 창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 생각한다.					
5	나는 창업교육을 주위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6	나는 창업교육의 내용이 새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 V.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학 령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4. 결 혼	① 기혼    ② 미혼
5. 창업여부	① 창업한 경험이 있다.    ② 없다.
6. 창업교육 여부	① 창업교육 받은 적 있다.    ② 없다.
7. 거주지	① 수도권    ② 강원도    ③ 부산, 울산, 경남    ④ 대구, 경북 ⑤ 대전, 충남, 충북    ⑥ 광주, 전남, 전북    ⑦ 제주
8. 관심업종	① 제조업    ② IT업    ③ 유통업    ④ 음식점업 ⑤ 서비스업    ⑥ 건설업    ⑦ 기타

♣ 대단히 감사 합니다 ♣

## 감 사 의 글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세심하고도 애정 어린 지도를 하여 주신 윤종록 지도 교수님과 품격 있는 논문으로 발전하도록 따뜻한 충고와 세심한 심사를 하여 주신 대전대학교 박계홍 교수님, 남서울대학교 김형철 교수님, 조선대학교 장용선 교수님, 조선대학교 손수진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지원하는데 의사결정을 하게 하여 주신 오진근, 윤봉주, 이규봉, 최백연, 천순례, 홍성오 등 각 박사님과 박사과정 중에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신 정진철 교수님, 조윤희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박사학위 과정과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일대일 면담을 통한 설문지 배포와 수거를 도와준 김유진·송지민 선생님과 항상 옆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를 보여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신 어머니님과 제일 귀한 딸을 보내어 주신 장모님과 저 세상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버님과 장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후 경영지도사 취득 후 경영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으니 컨설턴트 및 지식인으로써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인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2019년 2월 경영학 박사 서성열